FEB 3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35 1982년1월30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January 30,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협

캐나다·미국 입국비자 까다로와

북미 방문자들 골탕

고국서 출발전 사증 받아야 편리

한국정부의 여행자유화에 따라 방문객들이 캐나다나 미국의 친척들을 찾아오나, 사증(Visa)규정을 잘 몰라 애를 먹는수가 많다. 예를들어 지난12 월에 토론토를 찾은 방문객 K씨는 노스·웨스트항공을 이용, 시카고를 거쳐왔고, 돌아갈때 같은 루트를 이용하려고하나 토론토공항의 미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미국비자가 있어야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탈수 있다고 해, 애를 먹었다. K씨의 경우,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갔다가 앵커리지까지 가서 노스·웨스트 항공으로 서울로가는 절차이다.

27일 유니버시티 거리에 있는 미국영사관에 들린K씨는 사실을 이야기하고한달간의 경유비자(C-1)를 얻었다.

K씨가 미영사관에 가기 전까지는 여행사등에서 미국비자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했다.

지난 10월 토론토에 친척방문차 들렀던 L씨의 경우는 처음 LA의 아들을 방문하러 왔다가 토론토까지 오려고 했으나 LA의 캐나다영사관에서 "왜 한국에서 캐나다비자를 얻지 않았냐"면서 꽤 까다롭게 굴었다는 것이다.

많은 방문자들이 캐나다나 미국을 방문할 때 한쪽 비자만 있으면 나머지는쉽게 되려니 하고 현지에 도착하나 막상 현지 에서는 비자 얻기가 매우 힘들다.

본사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편리하고, 비자 얻기가 쉬운 방법연가를 미국영사관, 항공사, 여행사등을 통해 종합해 보았다.

1.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미국에 들리고 싶으면 캐나다 방문비자를 얻은 다음 서울의 미대사관에서미국경유 비자를(C-1) 받는 방법이 우선적이다. 물론 미국을 경유, 캐나다에 온다는 항공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여행사와 상의해볼수도 있고, 왜 미국에 들러야 하는가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토론토에 들르는 사람은 미국쪽 나이아가라에 가고 싶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방문비자도 복수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2. 캐나다에 온 다음 미국에 갈 일이 있다든가, 또는 미국의 친척을 방문한 다음 한국으로 가고 싶으면 인근 미국영사관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왜 한국에서 신청을 안했냐고 할 때 이유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서울 미국 대사관에 조회한 다음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으면 비자를 내어 준다. (비자문의: 토론토 미영사관 Univ. Ave. 전화 595-1707, 595-0228)

앞서 말한 K씨의 경우 비행기표에 시카고와 앵커리지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에 머무르는 이유가 분명하다.

3. 비자없이 미국에 가는 것을 TWOV(Transit without Visa)라 한다. 이 경우는 미국에서 공항을 벗어나지 않고 단순히 비행기 바꿔 탈 경우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캐나다에 올 때는 LA나 뉴욕을 경유할 수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LA를 경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비자없는 승객을 태운 항공사는 책임지고 다음 비행기를 태워줘야한다.

항공사가 책임을 안진다고 할 때 미국출입국사무소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토론토의 경우, 미국출입국 관리들이 공항에 있으므로 비행기를 못타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나이트·에어라인(U.A), 어메리칸(A.A), 에어·캐나다(A.C)등 큰항공사는 손님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4. 미국을 방문했다가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까다롭다. 특히 뉴욕이나 LA등 큰도시나 버팔로, 디트로이트등 국경도시의 이민관들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나 아틀랜타, 워싱턴 등지의 캐나다영사관은 비교적 친절하고 빠르다. 서울이나 미국의 경우, 캐나다비자를 신청할 때 3일정도의 시간여유를 두어야 한다. 캐나다 비자인경우 서울에서 미국비자를 얻은다음 신청하면 쉽게 나올 수 있다. 어떤 여행이든지 현지에서 미리 미리 행동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분: 미영사관, 대한항공, 천우여행사 신세계여행사)

한미 상호이해 촉구

워커 "남북한 차이에 주목하라"

(서울27일=연합)리차드·워커 주한미대사는 27일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발전을 모색하거나 한반도 분단의 국제적 해결을위한어떠한 제안도 성공하기어렵다고 말했다.

미여성클럽의 초청 연설에서 워커대사는 미국인은 "참을성없는 완전 주의자"의 경향이 있다며, 과거부터 미국은 자신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목표를 다른나라들이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워커대사는"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에 관련된한일부 미국인들은 에로서 그들이 조용한 아침의나라(한국)의 세부적인 사회발전양상도 결정할수 있는능력이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자주 그같은 능력은 변화되지 않을것으로 확신하고있다"고 말했다.

워커는 계속 미국은 우방 한국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기대에 자주 참을성이 없었으며, 이것이 왜 미국인들이 남북한 사이의현저한 차이를 끊임없이 상기해야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미관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워커대사는 양국은 안보, 경제, 정치및 문화관계 제반에 걸쳐 공동 관심사를 가졌다고말했다.

그는또"양국관계의 중요성과 문화적 차이및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목표의 다른점등을 고려해볼때 우리는 최대의 성의와 격의없는 의견교환으로 양국관계개선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차이점을 인정하고, 성의있게 다루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워커는 어려움을 예견하고 난국을 타개하기위해 우방양쪽은 그들 스스로 자국의 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스·코리아 5월15일 서울결선

캐나다대회는 4월24일

(서울본사)한국일보사주최 82년도 미스코리아선발대회(결선대회)가 오는 5월15일(토) 하오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막을 연다.

이 대회에는 해외교포중 캐나다, 미국, 일본등 거주국에서 뽑힌 미녀들도참가, 미와 교양등을 겨룬다.

전국결선대회 참가미녀들은 5월9일(일) 하오5시 서울의 태평양화학 연수원(용산우체국 옆)에 모인다.

해외미녀들은 당해국"진" 1명이 모국결선대회에 참가한다.

해외지역 미인 선발대회 개최일자는 2월10일 안으로 서울본사 사업부로 통고 하기로 되어 있다.

캐나다지역 미인대회는4월24일에 토론토에서 본사후원으로 개최키로 예정됐다 이 예선 대회에서 뽑힌 "진"이 캐나다 대표로 본선에 참가한다.

오늘의 예금금리 (1월25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59일	14.5%	13.25~14%
보통예금 (매일저축)		13%	12%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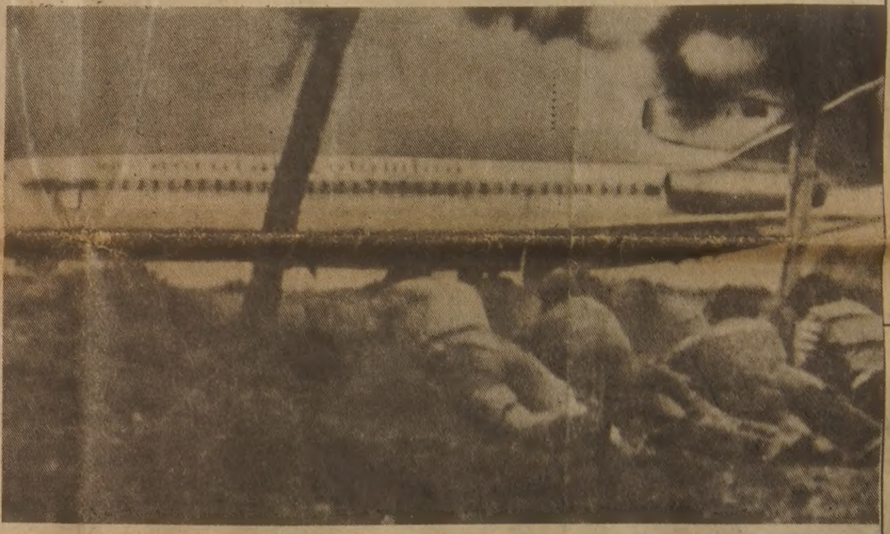
82년회장 김세환씨

뱅쿠버 한인회 총회

(뱅쿠버)뱅쿠버한인회는 지난23일 정기총회에서 김세환씨팀을 82년도 집행진으로 뽑았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의 4명을 런닝메이트로 묶은이날총선에서 회장 김세환(Home Appliance경영), 부회장 이종건(식당), 총무 김광진, 재무 이복만씨팀은 366표를얻어 임기 1년의한인회 살림을 맡았다. 이와 맞선 장범식 박사팀(부회장 후보 송시권, 총무후보 김덕산)은 33표차인 333표 득표로 고배를 마셨다.

한편 이날 당연직이사 4명(회장단)외의 5명 이사로 백인기, 임순철, 김진현 서광의, 전정남씨가 선출됐다.



57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하이잭커들

◇28일 이른아침 콜럼비아 경찰들과 여객기안의 57명의 승객을 인질로한 6명의 좌익 공중납치범들이 콜럼비아 수도 보고타의 엘도라도 공항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 여객기(보잉727)는 이륙을 시도하다 연료탱크를 들이받아 3개의 엔진중 하나가 파손됐다. 콜럼비아 당국은 국외로 탈출하기위해 또다른 비행기를 요구하는 하이잭커들의 요청을 거절, 충돌 일보전에 있다. 「M-19」이라고 불리우는 콜럼비아 최 과격파인 이 게릴라들은 27일밤 122명의 승객중 65명을 풀어줬다. 이번 비행기 납치사고는 82년들어 최초의 납치사고로 경찰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여자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됐으며 51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인질로 잡고있다. 현재 그들의 요구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도지에 장군 구출

경찰 5명의 범인체포

도지에장군

(로마)이태리경찰은 미육군소속 제임스·도지에준장을 과격파「붉은여단」의 감옥에서부터 무사히 구출, 장군을 수용, 감시중이던테러리스트 5명을 체포했다고 이태리의 ANSA통신이 보도했다. 이사실은 28일 미국무성에 의해 확인됐다.

도지에 준장은 작년12월 17일 베로나에있는 자택에서 수도수리공으로 가장한 붉은여단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됐었다.

「도」준장은 「나토」(Nato) 베로나지국의총 사령관으로 근무했다.

NASA통신에 의하면「도」장군을 구출한곳은 베로나동쪽 65km 지점이었다. 그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번「도」장군의 구출은 붉은여단에 납치되었던인사중 11년만에 처음으로경찰에의해 적발, 구출된 것이다.

미국 소식통은「도」장군이 무사히 베로나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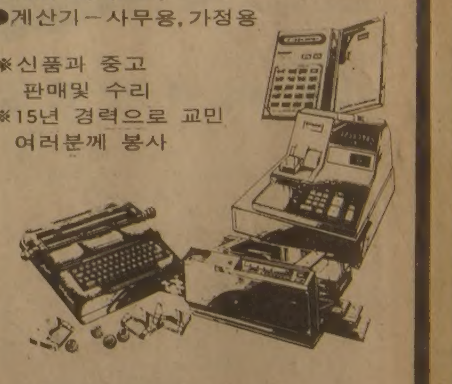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빈민자수 줄어도 빈부차 여전
직업여성 증가, 독신자가 가난

지난 12년간 연수입 약 6천달러미만의 캐나다의 빈민층 수는 약 반으로 줄었으며 그 원인은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제도나 경제사정의 개선이 아니라 가정주부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라고 전국복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Welfare)가 26일 밝혔다.

빈민가정의 수는 69년도의 전체국민중 20.8%에서 81년도에는 10.4%로 줄었다.

보건, 복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발한 이 위원회가 정의하는 빈민층 이란 전체수입과 기본생활수단인 주거, 의복, 음식에 충당하는 비용과의 비율이불균형한 사람들로 예를 들어 개인이 연수 $5,822의 개인 혹은 연수 $12,807의 4인가족이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토론토, 몬트리얼, 밴쿠버등)에 사는경우를 말한다.

도시의 인구수가 참작되는 이유는 그 규모에 따라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 수입층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볼 때 빈곤층과 부유층과의 격차는1951년이나 1980년도나 대동소이하다.

80년도의 통계로 보면최저소득층 20%에 해당되는 가정은 전체 국민의 수입의 겨우 5.9%를 벌은 반면 최고 소득층은 전체 수입의 38.5%를 벌어 들여 저소득층의 6 1/2배나 되는 소득을 얻은 셈이다. 최저소득층이란 연수 $12,803이하의 4인 가족, 최고소득층은 연수 $37,181의 가족이며, 독신의 경우는 연수 $4,344이하가 최저, 연수 $18,113이 최고로분류됐다.

또한 국민 전체의 평균 수입은 79년도 $24,245에서 80년도에는 $26,610로 9.8%가 늘었지만 그동안 물가는 10.1% 높아져 결국 수입이 1.6% 떨어진셈이다.

배틀·위원장은 정부의사회복지시책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수입이 늘은 것이 여성의 노동력, 가정주부가 생활비를 충당키 위해 나가서 돈을 벌어온 덕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록 전체비율은 줄었지만 숫자로 보면 80년도 통계상 빈민의 수는 거의 3백만에 육박하며 가족이있는 사람보다 독신자가 가난하다.

특히 여성이 가장인 가정, 연령 70세이상 혹은 24세이하의 경우 빈민층에 끼일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 통계에서 나타났다

"천도교" 미국상륙
LA교포사회에 활동

한국민족종교인 천도교가 미주교포사회에 첫상륙,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준비를 하고있다.

현재 이창, 박춘설씨등 두 신도들은 천도교중앙총부 미주연락사무소(P·O Box 184 3171 W, Olympic Bl, LA 전화:465-2065)를 두고 지난12월말부터 지금까지 약 40명의 신도들을 모았다.

이창씨는 지난해말 서울에 귀국했다가 천도교중앙총부에서 미주교포사회에 교리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의논하고 와서 박춘설씨와 함께 자비로 각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었다.

1860년 최제우 제1세교조(일명 최수운대신사)가 창시한 천도교는 창시연도를 「포덕원년」으로 정하고 82년 현재 포덕1백23년으로 주체성을 기리는 민족종교임을 앞세우고 있다.

최제우, 최시형등 1, 2대 교조는 모두 이조당시 박해밑에 순교했고 3세교조인 의암 손병희는 동학혁명과 3·1운동을 통해 천도교의 민족주체운동을 크게 일깨웠으며 이후부터는 행정조직과 정신조직등으로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본국에 1백여만, 일본에 3만여신도를 확보하고있으나 천도교는 창시된 이래 지금까지 온갖 정권의 박해속에 명실공히 민족종교다운 발전을 보지못했다.

과거 제3공화국시절에도 천도교에 대한 핍박은 여전했으나 60년대에 철학자인 고박종홍박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상연구회」가 결성되어 천도교에서 민족고유의 정통사상을 찾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 현재는 천도교의 한계가 발벗고 나서 지식층과 학생들사이에 관심이 고조되어오고있다.

이창씨는 『교회가 성립되고 교역자 파견등 지원을 받을때까지 속히 준비작업을 마치기위해 교포사회의 큰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우주형성의 근원을 연결과 포용력을 지닌 물로보고 제식때는 반드시 청수를 떠놓는 천도교의 교리는 「인내천」-인간이 곧 「한울님」으로 누구나 이러한 근본진리를 간직하고 태어났기때문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제창한 것이 박해받아온 제일 요인이다.

▲민족종교인 천도교를 교포사회에 심기위해 나선 이창씨(왼쪽)와 박춘설씨(오른쪽).

민속문화제 취소
라이언즈클럽 주최

토론토한인라이온즈클럽(회장 윤여경)주최「아리랑 한국민속문화제」는 한국에서 여권이 나오지않아 공연단의 출국이 불가능한관계로 취소됐다.

원로음악가 김생려씨, 민속무용가 권스텔라씨 지도의 동예술단은 오는 3월초 토론토 공연이 공표됐었다.

모국정부가 그들의 북미순회공연을 불허한 이유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북미공연과 중복되는 점, 또는 동공연단 맴버가 이중으로끼는 것으로 관측통은 보고있다.

캐나다, 폴랜드인
3500명 이민받아

(비엔나)캐나다는 금년에 3500명의 폴랜드인을이민으로 받아들인다고 오스트리아 통신사 APA가 25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캐나다의「베스트」 이민성 차관이 오스트리아의 어윈·랑크 내무성 장관을 만난 후 밝혀졌다.

베스트는 캐나다의 인도주의자들과 사설단체들이 그외의 난민들을 후원할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리 메이저스와 별거중인 파라포세트양(오른쪽)이 그녀의 이름을 딴 패브제 회사의 샴푸선전광고를 왕년의 풋볼 스타 조 네이머스와 함께 촬영하고 있다. 이번에 촬영한 상업광고는 오는 82년 봄에 TV에 방영된다.

겨울에도 낚시를 즐겨
심코호수등 얼음위 오두막 성업중

봄, 여름, 가을에 걸쳐 한창 신이 나 있던 강태공들은 겨울에는 풀이 죽는다. 낚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의 겨울은 길어 이들에겐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절망은 없다. 두드리면 열리는 법. 겨울철에도 낚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소위 말하는 얼음낚시(Ice Fishing)이다.

토론토에서 북쪽으로100㎞정도 올라가면 심코호수(Lake Simcoe)가 나타난다. 프로빈셜·팍(Provincial Park)및 유원지가 있어 여름캠핑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겨울에도 쉬지않는다. 낚시애호가들을 위해「심코호수 오두막운영자협회」(the Hut Operators' Association on Lake Simcoe) 회원들이 오두막을 지어 놓고 그 안에서 얼음을 뚫고 낚시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얼음낚시」사업을 26년간 해오고 10년전「오두막운영자협회」를 창설한 주역 돈·케퍼씨는 얼음낚시의 권위자이다.

그는 현재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2개 오두막을 소유한 쿡스·배이(Cook's Bay)를 운영하고 있다.

얼음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얼음상태에 대해 충고해 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그는 얼음상태나 조건이 호수 곳곳마다 다르므로 낚시꾼들은 오두막 운영자나 경찰과 같이 얼음을 탐사, 안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그는 또 두꺼운 옷 한두벌을 입는 것보다 낚시에 편하도록 어느때고 벗을수 있게 얇은 옷 여럿을 입는 것과 오두막바닥이 차가우므로 편하고 실용적인 따스한 신을 신을 것을 권장한다.

케퍼씨는 하루종일(상오8시~하오4시) 낚시하는데 한 사람당 $14를 받는다.

금년 심코호수의 오두막경영자들은 하루 오두막을 빌려주는데 $10에서 $16까지 받고 있다.

오두막을 빌리는 외에도 낚시꾼들은 태클(tackle)이라고 불리우는 낚시도구가 있어야 한다. 여느 낚싯대와 달리 길이가 30센티미터 정도의 막대로 양쪽 끝이 파여져 낚시줄을 감게돼있다. 가격은 $3.75 정도. 낚싯밥으로는 미노우(minnow)가 많이 쓰이며, 그곳 오두막 운영자들에게서 낚싯대와 함께 구할 수 있다.

오두막의 예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침 9시 까지 예약자로부터 연락이 없을 경우 취소된다.

잡히는 물고기중 화잇피쉬(White Fish)와 송어(trout)는 하루에 한 사람당 2마리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퍼치(Perch), 스멜트(Smelt), 청어(Herring)를 비롯한 다른 물고기들은 수에 제한이 없다.

오두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구멍뚫는 기구만 있으면 호수 어느곳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하다는 조건하에.

◇꽁꽁얼은 호숫가의 임시가설 오두막에서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 마루에 뚫린 구멍은 얼음구멍과 직통되어 낚시꾼들은 따뜻한 오두막 안에서 낚시를 즐길수 있다.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24)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번역

토론라이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는데 대개는 이것을 얻고자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 평장한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샤만들은 이것을 얻으려고모진 날씨, 최고의 굶주림과 갈증 속에 견디며 혼수상태에 빠진다.

그럴때에만 오직 토론라이트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지와 토론라이트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만일 사람이 이기면 그는 그 토론라이트로부터 일생동안의 섬김을 받고, 지게 되면 그의 고행길에서부터 다시돌아오지 못한다. 그렇지만 작은 토론라이트는 우연히 얻어지는 수도 있다. 예를들면 하루는 하나가 사냥을 나갔다가 한 귀신을 만났다.

그 귀신은 주둥이에 큰 수염을 달고 있었고 몸 길이의 반쯤되는 긴 앞발이 하나만 달려있는 자주 안아있는 동물같은 것이었다. 이 도깨비가 하나에게 덤벼들자 하나는 용감하게 활을 집어던지고 이 괴상망측한 것과 맞붙었다. 얼마나 싸웠는지 귀신은 지쳐가지고 항복하고 말았다.

가끔가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토론락이 주인을 도와주지 못한 때가 있다. 그럴때 주인되는 사람은그 귀신이 태만해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수작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내보내버리면 죄지은 귀신은 할 일을 잃고 울면서 들로 나가 버린다.

이할미우트의 귀신과 악마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샤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신에게 봉사하는 사람 들은 악마와 싸워서 이사람들을 보호하는 우두머리들로 특히 신체적으로 강해야하며 무장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각세대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며 이할미우트의 사회에서 막강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믿고 있는것 처럼 적어도 이할미우트 사회에서는 이들이 마법사가 아니고—가꾸미는 제외되지만—이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며 도와주는 일에 몰두하며 절대로 귀신을 불러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리고 여간해서 비싼요구를 하지도 않는다. 이할미우트는 모든 동물들이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망이나 신의 의지로도 짐승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샤만들은 자기들이 식량을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카일라신이 날씨를 조종하고 또 카일라신은 인간의 목소리로 구걸하는것을 시시하게 듣고 있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샤만들은 날씨를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샤만들은 어떤특별한 문제가 있을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울 수가 있다. 시련을 거쳐서 얻은 자기들의 토론라이트와 대화를 통해서 샤만들은 사람들이 여행이 안전할것인가 위험할 것인가 하는 충고를 줄 수 있다. 그들은 때때로 알 수 없는 병에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가정상의 문제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충고를 제시해 준다.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족속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초자연적인 수단을쓰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이 못된다. 동시에 이들은 모든 사람들위에 모든 힘을 갖고 있다고 교만하지도않다. 너무 똑똑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샤만들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을 통솔하기 위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 부적에 관련있는 특별한 금기는 아마 베위트라고 불리는 것일것이다.

이들 금기는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정해지는데 아이가 자라서 특정한 음식을 못 먹게 한다든가 특종의 동물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들이다. 그래서 오호토는 북쪽에서 나는 파이크(고기이름)를 먹지 못하게 되어있고 이노틸릭은 룬(새이름)을 잡지도 먹지도 못한다. 헤코우는 사슴의 콩팥을 절대로 만지지 못한다. 타부무는 작은 들쥐를 죽여서는 안된다. 만일 이것을 어겨가지고 법을 깨뜨리면 죽어서 이노(귀신)가 될 가능성이 많다. (계속)

IATA

러키국립공원 단체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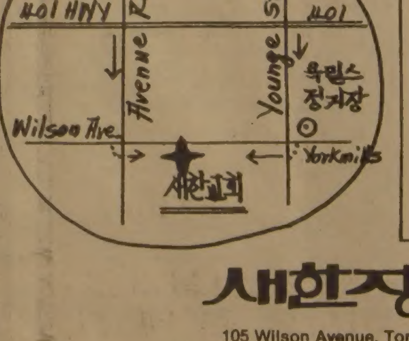
일 시 : 1982년7월1일~7월8일까지 (7박8일)
방문일정 : 벤프/재스퍼 국립공원 2박
존스톤 계곡 2박
온천장 1박
뱅쿠버/빅토리아 시 2박
요 금 : $650
포함된사항 : ●왕복항공료 ●숙박비(5인1조) ●관광버스 ●한국인 안내자
●식사(매일 야외 바베큐 1~2회)
신청마감 : 1982년3월30까지 예약금 $50(1인당), 이미 55명 접수완료, 나머지 25명 추가 접수중(선착순)
기 타 : ●취소할 경우 예약금중 $30은 반환치 않음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천주교 김성근 노년회장(752-4540)에게 연락해도 됨
●추가경비 : 세금및 팁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김창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김형석 교수
특별성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 연세대학교 문리대 철학교수
● "영원과 사랑의 대화"외 저서다수
● 라디오, TV, 집회등을 통해 청년신앙지도
● 시카고대, 하바드대, 서울대, 고려대, 숭실대 연구교수

교회약도



성회일정
2월 5일 (금) 밤 7시30분: 특별성회
2월 6일 (토) 아침 7시: 새벽의 명상
오후 2시: 청년신앙강좌
밤 7시30분: 특별성회
2월 7일 (주일) 오후 2시: 주일예배
밤 7시30분: 특별성회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nue, Toronto, Ontario M5M 2Z9
문의전화: (416) 482-4577 (사무실)
(416) 665-3132 (사택)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제2차 정기이사회 2월12일(금) 소집

제2차 정기이사회가 오는 2월12일(금) 하오7시협회회의실(한인회관) 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는 집행부가 상정해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사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각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을 완료할 것이며, 이사장에 의해 지명·추천되는 부이사장및 임원의 인준이 있을 것이다.

협회이사회의 조직·구성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제2차 이사회의 소집이 당겨진 것이라고 한다.

협회 COMPLAIN상담실 채용공고 정정

지난 1월20일자로 기보, 공고한 협회 Complain상담실장 채용공고 내용중 일부를 정정합니다. 이는 협회업무에 가장 중요한 회원 Complain상담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유급으로(임시로 Part time)그 실장을 채용하려고 모집공고를 한 것입니다.

공고문중 6번 구비서류제출,기일을 2월25일 에서 2월5일(금)까지로, 7번 채용발표일을 3월1일에서 2월8일(월)로 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부변경사항은 근래에 이 분야의 업무가 폭주하여 상담실의 정상적 운영과 핫 라인 전화의 시설을 서둘러 완료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러한 업무에 관심있는 분들은 급히 협회로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집행부 동정〉

①1월25일 : Sealtest Milk와의 회담. High Volume스토어에 대한 Rebate고려문제

②1월25일 : Halton Caird Insurance와의 회담. 스토어 Group Insuarance 및 Dental Life Insuarance에 대한 토의

③1월18일 : National Grocery와의 회담. Delivery base의 협상.

④1월29일 : Pepsi등 Popdrink회사와의 deal협상을 위한 모임예정

〈이사회 동정〉

김태진 이사장은 이사회내의 부이사장및 각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해 동분서주.

▲눈으로 만든 이글루.
뉴욕주 우드미어지역에 살고있는 케니스·나덴슨군이 눈으로 만든 거대한 이글루속에 들어가 유용여부를 실험하고 있다.

〈투고소감〉

협회실무에 참여하면서

김 풍 수(실협총무)

우리 한인교포사회에 여러가지 단체와 모임이 많다. 어차피 두사람이상 모이면 자연발생적으로 인간관계가 서로 얽혀져서 집단을 구성하게 마련이다.

부덕한 사람이 협회 집행부의 일원으로 협회실무에 뛰어들어 보니 하고픈 말이 있어 몇가지 소감을 펼쳐본다.

토론토에 한인 실업인협회가 창설된 동기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해도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자연발생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날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깊이 관여하여 숨은 노력과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본다.

현대는 과학의 급속한발달과 치밀한 조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도 조직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본다. 물론 한인이 운영하는 스토어가 많다 보니 같은 공동운명체로서의 의식과 물보다 진한 피를 나눈 동포애, 그리고 피부색깔과 언어의 장벽속에서 부딪치게 되는 복합문화의 이질감등의 환경 속에서 공동이익을 찾고,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이유와 잡다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당연성과 필연성등이 협회설립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협회설립의 목적이 어떤 영리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높은 차원의 봉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협회라는 조직은어떤 관공서나 사기업의 조직체도 아니며, 더더구나 동호인이나 동향인끼리의 단체도 아니고, 다만 회원들에게 골고루 실질적인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단체인 것이다.

협회는 어떤 권한중심이나 직능중심이 아닌 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각부서의 상호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때 분업의 최대활용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협회는 자체조직및사업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최대한의 노력과 일사불란한 단결력, 그리고 투철한 정신력과 참신한 봉사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럴때에 협회가 생산업자및홀세일러등과 상담을 진행할때 실질적인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1000여개소 이상의 한인소매상의 실질적인 대표적단체가 되어져 어느 체인 수퍼 마켓의 구매력보다 우세한힘을 보여주어 유리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협회의 임원들이 노력한 성과가 이루어질 때 항상 성원을 보내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져주어야 일선에서 뛰는 사람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다.

어느 운동경기장 에서든지 관중의 열렬한 응원이 있으면 뛰는 선수도 신바람이 더욱더 나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가 있을 때 예상외의 성과가 있을줄 안다. 회원들의 사업이 더욱 발전 번영하기 바라며, 또한 실업인 협회의 발전과 성장이 우리의 자부심을 키워주고,끝없는 캐나다의 대평원을 바라보며, 우람한 웃음을 날릴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겸하여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튼튼한 경제적바탕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문예작품공모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영희 작

…상황을 눈치챈 손님이 뒤쫓아 나가니 그자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getaway 차에 타고 컴컴한 길목으로 도주하고 있었다. 난 진짜너무 악이 나서 그의 말처럼 미쳐있었는지도 몰랐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왔다. 도저히 서 있을수가 없어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또 경찰을 불렀다. 어쩌면 경찰이 묻는 내용조차도 순서대로 훤히 알고있었는지도 모른다. 범인의 얼굴은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뗐었다. 더이상 번거로운 법정왕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또 하나의 여러번 강도맞은 경험에서 얻은지혜를 그대로 사용한것 뿐이었다. 사복형사가 다음부턴 그렇게 반항하지말고 순순히 돈을 주라하며, 그 돈 몇백불때문에 생명을잃는다는건 참 미련한 일이라 했다. 실상 잃는 돈은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지불받으니 구태여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한다. 참말 그렇다. 내가 생각해도 그자를 잡아서어 쩰려고 그랬는지 가슴이써늘해 진다. 강도에 대한분한 감정이 쌓이고 쌓인 후라 그 모든 원망을 멋모르고 들어온 그 강도가 뒤집어 쓴격이 되었다. 이젠 창사고 나발이고 문을 닫고 집으로 와버렸고, 그날 그이후론 상점이라면 딱 정이 떨어져 아예 손을 떼고 말았다. 상점엔 신경을 쓰지않고 아빠가 Helper를쓰며 혼자 경영하기로 했고 난 나대로 일주일에 한 두어번씩만 병원일을 나가며 집안일을 돌보기로 했다.

7) 끝맺는 말

행운스럽게도(?)몇번이나 겪은 두렵고 긴장된 순간에, 틀림없이 누군가가 날 보호해 줬다는,나와 함께 있었다는 신념을 갖게했다.

감사한 마음에서, 아주 완전히 의지하고싶은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나가고 싶었다. 온가족이 같은 느낌에서 일요일엔교회를 간다. 하느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아온 지난날들이, 모든것이 우리 노력의 결과요, 우리의 능력이라 믿었던 점들이 부끄러워짐을 느꼈고, 우릴 지켜보시는 하느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가정에 한없이 내려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놀라운, 그리고 믿겨지지 않는 일인지는 몰라도 난 이글을 다른 Counter앞에서 전부 써내려왔다. 골빈 여자라 생각될지도 모른다. 허지만 이젠 Counter에 혼자 서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24시간 경비원이 계속 순찰을 해주고 또 저녁 9시면 상점문을 닫으니 공포중에 걸릴 까닭도 없겠지만, 그보다 더한것은 하느님의 천사가 나와 항상 계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임을 알고 있다.

—끝—

협회와 연관되어 있는 업체명단및 전화번호

협회로 많은 회원들의 각 연관업체 전화번호 문의가 많아 현재 확보되어 있는 리스트를 안내하오니 계산대에 붙여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연관업체	전화번호
Milk	Silverwood	536-2424
	Rosen Dairy Division	278-6455
	Sealtest	963-6417
	Beatrice	363-9171
	Borden	445-3131
Bread	Dempster's (O.K.)	537-3401
	General Bakeries (R & O)	
	Brampton, Missi. Area	457-6242
	Scarborough Area	759-1535
Ice Cream	York (Salesman)	225-4555 ex
	(Superviser)	766-4311(541)
	Neilson	534-6592
Magazine	Intercity News	252-6351
	Metro News	752-8720
	High Point	751-4760
	Multi Media	495-9499
Chips	Humpty Dumpty	743-9191
	Hostess	675-5605
	Frito-Lay	624-5050
Nut	Johnson's Nut	449-5171
Insurance	Halton Caird Insurance	845-4581
Accountant	Mintz & Partners	787-0151-0156
	Hammond and Company	496-0366
Ice	Lake Simcoe Ice	231-7267
Gift & Toys	Dominion Smallware	789-7214
	Noor Es	757-8400
	Eastside Novelty	889-7777
	Arkin Distributing	495-9922
	Irwin Specialties	533-3521
Cash Register	Skyway Business Machines	675-1295
	Victor	751-6511
	Specialized Business System	252-7377
Pop	Coca Cola	424-6304
	Pepsi	964-1313
	Canada Dry	241-1311
	Crush	449-3800
	Dr. Pepper	928-0288
Hosiery	Modena	667-1322
	Elite	492-8208
Sunglass	Camelot	663-2972
	Whimports	465-4603
Whole salers	U.K.L. Cash & Carry(연합상사)	251-6578
	Sincere Trading (신의상사)	789-7944
	U.B.A. - Uclid	366-2324
	- Drummond	252-2120
	- Prescott	656-1921
	Leob - Scarborough	752-7292
	- Evans	255-6366
	- Orfus	782-8851
	National Grocers	961-5151
	Lanzarotta	669-98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제15조 1항에 의거 1982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 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2월12일(금요일) 오후7시

장 소 : 한인회관 회의실
20 Mobile Drive, Toronto,

안 건 : 1) 추경 예산안 심의
2) 분과위원회 조직구성
3) 부 이사장및 임원 인준
4) 기타 안건

1982년 1월25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이사장 김 태 진

Hammond and Company
Accounting, Tax and Management

JOSEPH HAMMOND
TEL. 496-0366
37 HAWLEAF CRESC.
WILLOWDALE, O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셉 하몬드입니다. 저는 19년간의 어카운팅업 종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실업인협회 회원들의 어카운팅, 또는 북키핑 써비스로 봉사하기를 열망합니다. 신속 정확하고, 특히 세무감사에 대한 대비에 많은 경험이 있읍니다.

학 력 American University Lebanon Diploma, B.A. 자격 R.I.A.자격 Certificate for proficieney in Economics from London chamber of commerce.
경 력 19년 Worked with large firms of chartered accountants Arthur & Anderson (4년) Dunwiidy co (2년) Owner of Hammond & company,AccountNG and Tax firm (7년)

◇채용공고◇

본 협회는 회칙 제4조, 10조 집행부 조직의 확대에 의거하여 아래와같이 상담실장을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자 격 : 따뜻한 동포애와 사명감을 갖고 협회발전에 기여하여 회원들의 Complain 상담에 응하여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원만한 인품을 가진 분.

근 무 : 주3일 5시간씩(현재는 Part time이지만 앞으로 Full time으로 될 예정)

대 우 : 능력에따라 우대함.

구비서류 : 한글및 영문이력서 1매

※상기구비서류를 2월 5일까지 협회사무실로 제출하거나 우송할것.

채용발표 : 1982년2월8일

※자세한 내용은 협회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람

전 화 : 752-7771, 752-7773.

1982년1월20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
협회장 : 차 선 겸

또다른 美研修 同期生 鄭군

朴尙恩양 殺害혐의 拘束

檢·警 수사결과밝혀

"自家用드라이브… 여관同行 요구"

빰맞고 絞殺, 시트커버 血痕증거

상경여대생 朴尙恩양(21·부산산업대학2년) 살해범은 朴양의 해외연수동기생인 I대학행정학과3학년 鄭載巴군(21·서울江南區驛三1洞)으로 밝혀졌다. 朴양피살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서울지검 東部지청 姜原一부장, 趙炳吉검사는 25일 鄭군을 진범으로 검거, 살인, 사체유기, 절도등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10·11면

"朴양 3角관계에 심한 嫉妬 순간적범행 自白"

혐의받은 張慶秀군 두달만에 무혐의 풀려나

검찰은 鄭군이 범행에 사용한 서울2마4649호 포니승용차 시트커버에서 검출된 혈흔(朴양것과 같은 O형)과 鄭군의 자백을 증거로 제시, 서울지법東部지원 宋載憲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城東구치소에 수감했다.

한편 경찰에의해 범인으로 지목, 지난해11월28일 검찰에 불구속송치됐던 張慶秀군(22·K大3학년)은 이날자로 무혐의불기소 처분됐다.

이로써 인권시비, 과학수사 등 숱한 화제를 뿌렸던 朴양사건은발생1백30일, 검찰송치 58일만에 일단락됐으며 사건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관련자 1백20여명을 정밀수사중 鄭군에대한 용의점을 발견, 추궁끝에 자백을받았다.

검찰에의하면 鄭군은 지난해9월18일밤 9시30분께 아버지 심부름으로 「최신가정백과사전」을 빌리기위해 蠶室장미아파트24동 삼촌집에갔던길에 숙모에게 부탁, 朴양에게 전화를 걸게했다. 鄭군은 전화를 바꿔 『할말이있으니 만나자』고 제의, 아파트 17동앞으로 불러내 자신이운전하는 포니승용차 운전석옆자리에태운뒤 蠶室대교 강변도로 제3한강교 남산순환도로 남산도서관 江南區新沙洞 永東 AID아파트등을거쳐 1시간가량 드라이브한뒤 자기집에서 1.4㎞ 떨어진 三成洞 三井旅館앞에 이르러 차를세우고 포옹하려 했다.

朴양이 거절하면서 『미친놈』이라는등의 욕설을 하면서 빰을 때렸고 여관으로 들어가자고 요구했을 때 거듭 빰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 주먹으로 3차례 얼굴을 때린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鄭군은 朴양이 숨지자 여관앞 빈터의 인조석더미속에 사체를 묻고 승용차로 돌아와 차안에 있던 朴양 소지품에서 강도를 위장하기 위해 현금 10여만원과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1개를 빼내고 센들은 풀숲으로 던진후 집으로 돌아갔다.

鄭군은 다음날 새벽5시께 승용차를 몰고 현장을 다시 둘러본뒤 21일 등교길에 大方전철역부근 쓰레기더미에 금반지를 버렸다.

鄭군은 지난해7월 朴양과 함께 미국연수를 다녀왔는데 당초 朴양과 친했으나 그뒤 朴양이 동료연수생 張慶秀군과 가깝게 지내는데 질투와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것.

그뒤 지난해9월17일 朴양이 韓國대학 대하미전에 입상, 수상식에 참석키위해 상경한뒤 『헤어지게돼 미안하다. 차나한잔하자』고 鄭군에게 전화를 한일이 있어 이날 朴양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했었다는 것.

한편 검찰은 이날 鄭군을 기자들과 만나게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증거는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과정에서 제시하겠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또 『朴양의 빰에난 치흔은 직접사인(死因)이 아니기때문에 鄭군의것이 아니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鄭군은 범행5일후인 지난해9월23일 회사차운전사인 文智永씨(31)와 함께 서울 麻浦區桃花洞의 新進카바사에서 범행에사용했던 승용차의 시트커버를 겨울용으로 갈아끼웠으며 헌시트커버는 뒤트렁크에 넣어두었다 江南경찰서에 압수당했었다.

◇上衣도벗어준 多情한 한때

작년7월 미국으로 함께연수 갔을때 샌프란시스코시가를관광하다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찍은 鄭載巴군과 朴尙恩양. 鄭군이 양복상의까지 벗어 朴양에게 걸쳐줄정도로 이들의 사이는 가까왔었다.

"朴양은 張군관계 돌이킬수없다말했다"

鄭군 검찰신문서

『鄭군은 검찰신문과정에서 尙恩양과 가족들에게 사죄하고싶다. 특히 해외연수동기생인 張慶秀군에대해서는 자신때문에 피해를입었으니 죄책감을느낀다』고 말했다. 또 朴양이 미국연수중 처음 2주동안 자기와 가까왔다가 그뒤 張군과 더 친해져 그것때문에 고민도 많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건당일 함께 드라이브할때 朴양은 張군과의 관계를 돌이킬수없으므로 자기와의 사이는 추억으로 돌리자고 말했다는 것. 鄭군은 또 범행은 전혀 우발적이었고 순간적 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情況증거로「心證」"

"任意性있는 自白은 證據의王 發表안된증거 裁判서 밝힌다"

趙炳吉檢事와의 一問一答

―鄭군에게 용의점을 두게 된 동기는.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하는과정에서 鄭군의 진술내용이 불합리하고 거짓부분이 많은것을 발견했다. 또 사건당일 삼촌집에 간 사실을 숨기려했고 나중에는 다음날 간것처럼 속여 심증이 갔다. 이밖에 계속 드러나는 정황증거로 심증을 굳혔다.

―발표되지않은 다른 물증이 있는가. 또 확보된 증거만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발표된것 이외의 증거부분은 공소유지상 현재로서말하기 곤란하다. 구체적인것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것이다. (전화를 걸어줬다는 숙모의진술과 사건당일 鄭군의 행적에 대한 어머니의 진술등을 녹음해뒀음을 암시하는듯) 최근 검찰자백의 증거능력이 논란되고있으나 『임의성있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본다.

―鄭군으로부터 자백을 끌어내게된 결정적 계기는.

▲시일이 지난 사건이라 자백을 얻는게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행적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과정에서 鄭군자신의 진술내용이 점차 앞뒤가 맞지않았고 인간적양심에 호소하자 가책까지 겹쳐 전혀 강요하지않은 상태에서 순순히 범행일체를 털어놓았다.

―경찰수사의 헛점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않다. 다만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일뿐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는데 경찰수사에 대해 무슨말을 하겠는가. 경찰이나 검찰 모두 국가기관으로서 공을 세우기위해서가 아니라 진범을 잡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鄭군을 심문하는 과정은 어떠했나.

▲교과서적인 방식을썼다. 이말은 고문등의 강제수단은 전혀안쓰고 원칙적인 수사를 했다는 뜻이다.

―鄭군을 부모와 대질시킨 때는.

▲鄭군의 자백내용을 녹음한뒤인 22일이다.

―이때 鄭군의 자백내용에 대해 부모들이 시인했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더이상은 공소유지상 말할수 없다.

―鄭군어머니는 아들이 범인인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던게아니냐. 전화해준 사실을 공개수사를 펴는 경찰에 신고하지않은 숙모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자기조카를 신고할 숙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보다는 경찰이 대대적으로 「전화해준 여인」을 찾았는데도 왜 나타나지않았던가를 이제 알수 있을것이다.

―법정에서 鄭군이, 또는 어머니, 숙모등이 진술을 번복할때는 어떻게 하겠나.

▲鄭군은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뿐만아니라 권리도있다. 어머니등도 번복할것에 대비해두고있다.

―鄭군은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하는 조건으로 행적진술서에 지장을 찍었다는데.

▲상식으로 생각해 봐라.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北韓주민 10等級나눠 差別

不純分子로 離婚당해 "여행證없어 賂物로 모면"

歸順한 김용준氏 北韓실정 폭로 "개인商業허용된 滿洲로 탈출도"

지난7일 휴전선을넘어 월남귀순한 북한주민 金容俊씨(31·함북穩城郡 온관노동자구·동기계수리공)가 25일 삼군회관에서 회견을갖고 오랜귀순동기와 최근의 북한사회실태를 폭로했다.

金씨는 북괴정치보위부가 북한지역 주민들을 10개계층 즉▲혁명열사▲혁명가▲전사자및영예군인▲우수당원▲일반당원▲보통계층▲남한출신▲전과자▲6·25월남자가족▲국군협조자로 멋대로 분류하고 계층별로 차별대우를하고있으며 불순계층에 대해서는 자강, 양강, 함경도등산간오지로 집단이주를 시켰다고 밝혔다.

金씨는 자신도 日政때 아버지가 면서기였다는 이유로 불순계층으로 낙인이 찍혀고향인 강원도 회양에서 강제이주당해 노동자로 일해왔는데 월남직전인 작년11월엔 아오지 화학공장으로 이동명령을 받았으며 갓결혼한 처(최란화·25)로부터 『불순분자남편』이란 이유로 이혼까지당하는등 극심한 좌절감속에서 고민해오다 자유대한으로 월남을 결행한것이라고 귀순동기를 말했다.

金씨는 지난4일 穩城을떠나 平康까지 야간열차를 타고오는도중 검표원으로부터 여행증이 없다는이유로 연행될뻔했으나 북한돈 3만원(한화1만2천원)의 뇌물을 주고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金용준씨는 자기가살던 함북穩城은 집단이주당한불순계층이 많이살고있는지역인데 두만강너머 中共지역은 근래들어 개인상업이 허용되고 외국산물품이 많이 유입되는등 생활여건이 자유로와졌다는 소문이 퍼져 많은 북한주민이 강건너 중공지역으로 집단탈출해가는 실정이며 이에 당황한 북괴는 중공에 대해 탈출자들의 소환을 요구하는 한편 韓滿국경에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자 회견하는 김용준氏

"經協조속 妥結"

스즈끼·사꾸라우찌 衆議院서 연설

【東京25日=宋孝彬특파원】 스즈끼(鈴木)수상은 25일 오후 중의원에서의 시정연설에서 60억달러에 이르는 對韓경협문제에 관해 『현안문제인 한국과의 경제협력문제는 최대한의 협력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타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한국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웃나라이기때문에 광범위한 인적·문화적교류를통해 이룩한 국민적 신뢰의 바탕에서 한일 우호증진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꾸라우찌(櫻內)외상도 이날 중의원서 행한 외교방침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과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기때문에 한국과의 경협문제는 일본의 대외경제협력방침에 따라 될수있는한 최대의 범위안에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柳 民韓총재 28일 金 국민총재 오늘 연두記者회견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오는 28일상오9시 汝矣島당사에서 年頭기자회견을갖고 國政전반에 걸친 黨의입장과 자신의 時局觀, 그리고 새해의 黨운영방침을밝힐예정이다.

한편 金鍾哲 국민당총재도 26일 상오9시 貞洞당사에서 기자회견을갖는다.

在外 公館간에 情報교환 强化

정부는 在外공관간의 유기적협조를위해 지금까지 외무부본부와 在外공관사이에만 제도화된 정보보고 시스템을 다양화, 공관과 공관간의 직접정보교환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지난23일폐막한 在外공관장회의에서 거론됐으며 특히 오는9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非同盟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강화방안과 관련, 주재국 공관간의 측면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관계소식통은 지역공관별정보교환은 현재 美국무성의 시스템을 통해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히고 예산확보등 구체적인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이를 적극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社会漫評

기획원·財務部등 劉총리에 업무보고

劉彰順국무총리는 25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대한 보고를 받았다.

劉총리는 정부각부處별 업무계획을 앞으로 계속 보고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2월초 劉총리를 시작으로 각部別施政방침을 장관들이 TV를통해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地平線

공휴일은 아니지만 구정을 조용히 지내는 가정은 여전히 많다. 대부분의 상가가 철시했고, 때때옷 차림의 꼬마세배객이 눈에 뜨이는가하면 많은 공장 종업원들이 성묘하기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중과세와 구정을쇠는것은 전혀 뜻이 다르지않느냐는 표정들이다.

▼신정에 세배못간집에 구정을 이용해서 세배하는분도 더러있다. 아이들이야 떡을 두번 먹는다고 좋아하고, 신정 구정을모두어정쩡하게 보내는 가정도 많다. 설목은 세배라는것도 있다. 섣달그믐날 사당이나 친척또는 어른을 찾아 드리는 세배를 말한다. 설빔에 앞서 그 집안형편이 궁색할것같으면 솔그머니 歲儀金을 방석밑에 놓고 나오는게 옛날미풍양속이다.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샌터클로즈 할아버지역할을 어른들이 하는것이다. 이돈으로 아이들 때때옷이나 꽃신을 장만해서 머리맡에 넣어주는 집도 있다.

▼지금은 두고온 산하의 풍속이 어떻게 변했는지모르나 평안도에선 설날새벽 제수를 마련하고 차례를 지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뫼를 따로따로 올리며, 떡국은 안쓰고 만두국을 드린다. 湯은 고기·두부·다시마의 三湯, 꽃대야에 증편, 찰떡을담고 녹두지짐, 닭·쇠고기산적, 돼지편육, 조기에소주를올린다. 시골선 누룩으로 술을담가 약주나 막걸리를마련했고 녹두나물과 콩나물을 집에서 길렀다. 만두에는 돼지고기, 꿩, 김치속을넣고 닭고기국물에 송편 모양으로 귀가나게 섬만두를 빚었다. 일년농사가 섬가득히잘되라고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는 만두다.

▼지금은 만두가 일반화되어 대기업에서까지 만두피를 양산하여 일년내내먹을수있다. 알고보면 고려때부터 먹던 음식이다. 만두는 蜀나라의 諸葛孔明이 휴대식량으로 만들었다고한다. 한편 孔明이 거센강을 건너야할때 양과돼지고기를 밀가루에 싸서 人頭처럼만들어 제사를지내 귀신을 속였다는 설도있다. 饅은 欺瞞과같이 속인다는 뜻이있고 머리를 속이므로 饅頭, 蠻頭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星湖僿說엔 밀가루를 酒酵로 부풀게 해서 만들었다는 설명이있고 高麗歌謠의 雙花, 東國歲時記의 霜花가 만두인것을보면 왜 그이름이 왔다갔다했는지 분명치않다. 중국말의 包子가 饅頭인것만은 확실한데 山東의 水餃子, 華南의 燒餃子가 말발굽같이 빚었다고해서 생긴말이기는 하나 우리말의 湯餠, 떡국도 만두와 통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떡국이나 만두를 두차례씩 먹는 우리네가정에서 행복을 쌀입듯이 이는 복조리마저갖춘 집이많으니 아무쪼록 立春大吉이 가득찾아오기를 바랄뿐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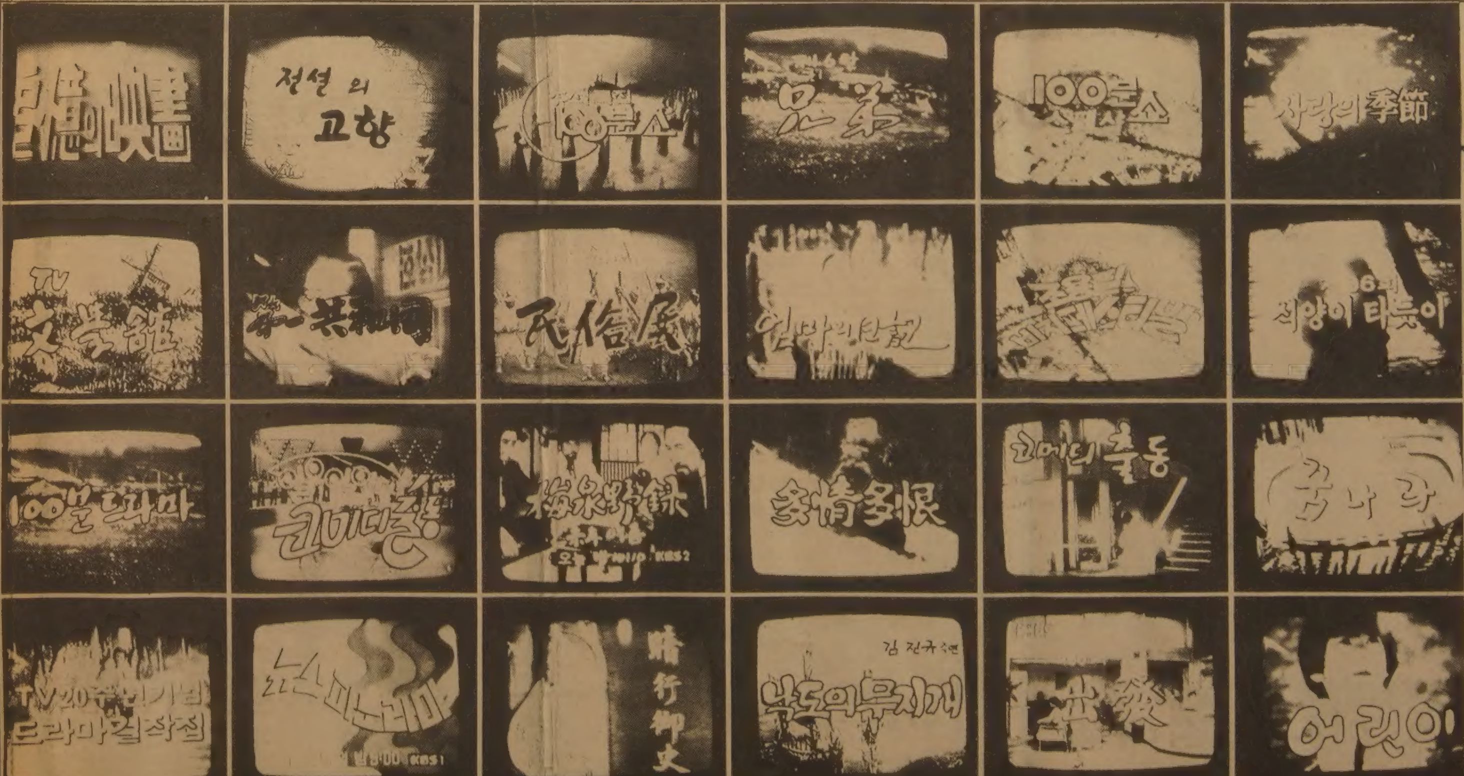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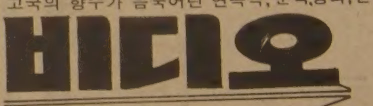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B) 922-3111
R) 791-8196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의니, 3총지도, 정승판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역마, 배따라기, 청산댁, 부친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제, 매일붓던 우렁등…

영화—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오원대 소년

코메디—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폭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쇼11, 쇼2000, 100분쇼, 쑈쑈쑈,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제용, 흘러간 노래모음, [illegible]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간첩체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름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암행어사, 토요대장, 대망, 각각 10여편

민속—광도대향연,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향연, 푸른 조국, 상자및 하늘아래

일요드라마—소망, 부부, 한국의 미, 인물가족등 10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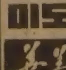
기타—인간기록, 사랑의 계절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경주세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 "쿠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총결선

어린이용—우주 대작전, 꿈나라,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축협의 쇼스, 정이의 세계여행, 하이난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얄개시대, 호랑이 선생, 마징가, 인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illegible], 죽음의 쇼스, 힘있는 아이, 서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면사인, 이소룡의 전설, 비지회에서 생긴일, 7인의 신부, 바람의 복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수리작전, 베르린 위기탈출, 디어 헌터등 40여편, 모두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베일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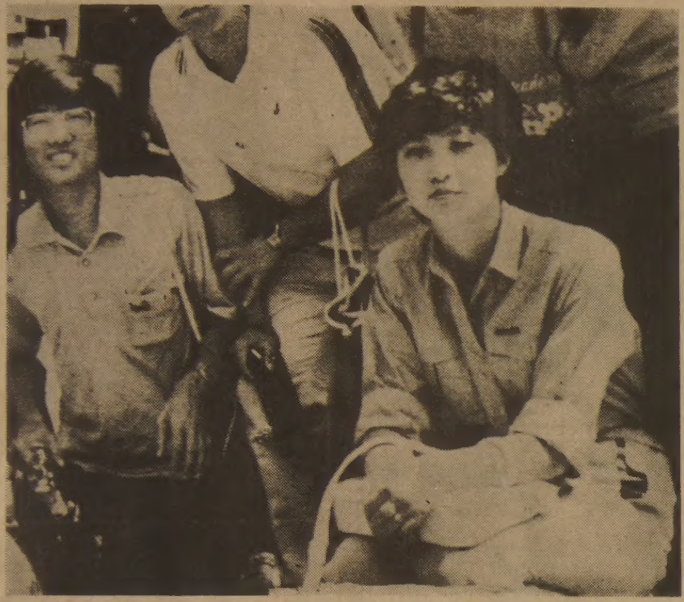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A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警察,齒痕에 너무집착 搜査방황

혐의풀린 張군 19개證據등 의문점 다시分析



◇다정했던 鄭군과 朴양의모습 해외연수동기생들과함께 찍은 사진。朴尙恩양㊨과 鄭載巴군(중앙안경낀학생)이 앞줄에 나란히 보인다。

머리카락도 朴양것 단정못해
三井莊 종업원들도 張군몰라
"責任지라"는 犯行동기도 허술

경찰의 수사결과를 놓고보면 張慶秀군은 결코 범인일수 없었다。경찰이 검찰에제시한 19가지의증거자료중 확실한 것은 朴양의 오른쪽팔에 난 치흔이 張군의 치열흔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한가지뿐이었다。나머지는 모두 자백의 임의성이 결여돼있고 앞뒤의 논리가 맞지 않아 의문점투성이었다。

경찰이 張군을 범인으로보는 이유는▲張군의 임의자백 ▲치흔 ▲여관담벽에서 발견된 머리카락▲張군의 알리바이 불투명등 19가지에 이른다。그러나 張군의 진술과 수사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했을때 경찰의 주장은 한마디로 아전인수격인 심증의 조합에 지나지않는 것이었다。

먼저 경찰이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는 증거인 치흔만 해도 張군과 朴양이 만났다는 증거는 될지몰라도 살해의 증거는 될수 없었다。경찰은 또 치흔이 생긴시간을 놓고 朴양이 죽기 15분~1시간32분 사이에 생긴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의학자에 의하면 3~4시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것。

경찰은 또 사건발생10일만에 三井莊여관 담벽과 朴양의 T셔츠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증거물로 제시했다。담벽에 붙은 머리카락이 朴양의 혈액형과 같은 O형이라해도 10여일후에 발견된데다 반드시 朴양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길도 없었다。T셔츠에서 발견한 2개의 머리카락은 혈액형이 O형이어서 A형인 張군과는 아무관계도 없는것이다。

경찰은 없어진 朴양의 금반지에 대해 살해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빼간것으로 주장했는데 이역시 금반지보다 빼내기쉬운 귀고리와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던 점,그리고 朴양의 오빠조차 금반지를 끼고있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점등으로 볼때 의미가 없다。더구나 張군이 금반지에 대해「팔아버렸다」「한강에 버렸다」「하수구에 버렸다」고 진술한것등은 경찰의 고문에 못이긴 결과로밖에 볼수없다。

張군과 朴양은 사건당일인 18일밤10시에 三井莊여관 204호에 투숙한것으로 돼있으나 張군은 여관방의 구조를 전혀 틀리게 진술했고 종업원들도 이들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경찰은 朴양집에 대신전화를 건 부분에 대해서도 張군이 송화기에 수건을 대고 가성을 냈다고 주장했는데 아무리 뛰어난 성우라해도 20대의 남자가 20대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란 쉬운일이 아니며 그날하오 이미 데이트를 했던 張군이 그런구차한 짓을 할이유도 없었다。

범행추정시간도 왔다갔다 했다。경찰은 처음 사체발견자들의 진술에 근거, 이슬이 없었던점을 미루어 피살시간을 19일새벽 4시전후로 추정했다가 다시 18일밤11시께 살해됐다고 피살시간을 변경했다。아무런 근거없이 피살시간을 임의로 앞당긴것은 결국 심증이가는 張군이 朴양과 만난시간대에 억지로 맞추려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張군은 당일 하오9시20분전후 朴양을 집에데려다 주고 버스편으로 하오10시20분께 집에 돌아갔다고 진술, 朴양오빠와 張군가족의진술과 일치했는데도 경찰은 이를무시해버렸다。

경찰이 주장하는 범행동기도 허술하기 이를데없다。경찰은 張군이『장래를 책임지라』는 朴양의 요구로 시비가붙어 엉겁결에 朴양의목을 졸라 살해했다고버렸는데 두사람의 개방된 애정관으로볼때 납득이 가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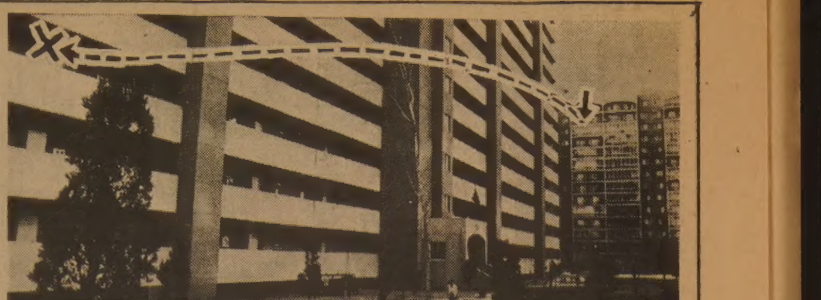
경찰은 또 張군이 임의동행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백을 얻어냈다고했지만 이도 믿을수 없었다。경찰은 처음2번은 張군을 아버지와 면회시켰으나 그뒤로는 일체의 면회를 금지、외부인과 단절된 상태에서 수사를했고 연행16일만에 장기연금상태에서 풀려나 기자와 만난자리에서의 張군의 진술은 경찰의 주장과는 정반대였다。

이밖에도 張군의 청바지와 스포츠화에 흙이묻은것을 방증자료로 제시했으나 이역시 현장부근의 흙과는 다른것이 판명되었다。

한국일보는 이같은 의문점을 낱낱이 지적(81년10월7일자)했으나 경찰은 귀를기울이지않았고 결국 검찰이 같은 이유로 張군을 귀가 조치시켰었다。

끝내 경찰은 새로운 각도에서의 수사상황을 찾아보지 않은채 사건발생41일만인지난10월29일 사실상 수사를종결,모든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11월28일「유죄확인」이란 기소의견을 첨부,張군을 살인및 사체유기혐의로東部지청에 불구속송치하고 수사브레이크를 거는 검찰을 비난했다。동시에 수사본부도 해체해버렸다。진범을 놔둔채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본뒤 손을턴 경찰의 수사태도는 임의연행이라해도 변명할 말이 없게됐다。

하마터면 張군이 당할뻔했던 경우처럼 억울하게 당한다는것이 이처럼 용이하다고 볼때 으시시해지는기분을 어쩌지 못한다。【方政俊기자】



◇鄭군이 朴양을 불러냈던 鄭군의 살롱집(화살표·장미아파트24동)과 朴양이 상경해서 묵고있던 오빠집(×표·28동)은 바로 이웃에 있었다。鄭군은 숙모에게 전화를부탁,朴양과 통화를해 朴양을 밖으로불러냈다。

억울한 張군 보상의 길은…

고문사실 고소없이처벌가능
진술 내용 公表한것도 違法
國家상대로 소송제기
精神的고통 보상가능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렸던 張慶秀군과 그의 가족이 당한 신체적 정신적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특히 16일동안 임의동행이라는 동반수사기간중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 관계법규가 규정하고있는 보상범위는 어떠한가。

安明基변호사는 張군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뒤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형사보상법에의한 보상은 받을수는없지만 경찰이 장시일을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으로 불법구속한일,또 고문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점등으로 미뤄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따라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보상받을수 있다고했다。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직권을 남용해 어떤 사람을 불법체포·감금했을경우 7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것이다。(형법124조)

다시말해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 張군의 주장처럼 불법감금이나 고문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 張군이 고소를 안해도 그 수사관은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또 형법 125조에는 형사피의자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는 5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수 있도록 돼있어 張군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張군을조사하면서 보도진에게 사진을 찍게하고 진술내용을 알려준 것도 피의사실공표죄(형법126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될수도 있다고 말한다。

安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은 張군을 마치 진범인것처럼발표하여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케 함으로써 張군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한다。

이와같은 경우 일본의 판례를 보면 불확실한 사실을 수사계장이 신문기자에게 발표한데대해관할 현(縣)에 손해배상책임을인정했는가하면 어떤판례는 이와비슷한 사건에 관해『수사관이 상사의허가를 얻어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다는 것。

文珍鎔변호사도『모든국민은 수사과정에서 어느정도 협조할 의무는 있다』고 전제 『용의자가 고문을 받았을때는 고문한 사람은 형사적 책임을 피할수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張군의 경우도 학생의 입장으로 공부를 할수 없었고 주위에서 범인으로봐 친구들마저 외면, 학교를 옮겨야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것에 대해서 민사·형사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것。

그러나 文변호사는『張군의 그동안 억울함은 범인이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어느정도 해소됐을것이고 재판과정을봐야하기때문에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때문에 앞으로 보상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대책을세워야한다』고 말했다。

洪모 변호사도『부당한 수사에 대해 당연히 민·형사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고문을한 담당수사관과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은특히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張군의 실추된 명예와 신체적·정신적고통은 돈으로도 보상받을수없는것이고 담당자가 사죄를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다시는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임의동행이라는 불법감금이나 고문등 가혹행위를하는 처사가 없어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750조와751조는 불법행위로인해 개인이 입은 정신적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놓고있기때문에 張군은 제소를해보상의 길을 찾을수있다。

되찾기어려운 張군의 인권과 명예처럼 우리수사기관은 종종 용의자의 인권을 무시해왔지만 이번 검찰에서는 용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끈질기게 수사를펴 사건발생 1백30일、사건을송치받은지 58일만에 개가를 올려「억지수사」의 막을 내리고「민주수사」의 길을 열었다。

수사의民主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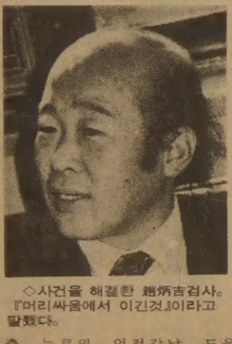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 수사기관은 강력사건 수사를 할때 용의자 강제연행、고문혹은 강요에 의한 자백、물증확보、구속등 순으로 육감에만 의존, 주변인물들이 용의자로 몰려 張군처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그래서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몰려 구속됐다가 무죄로 석방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검찰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의자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건을 해결, 민주적인 수사의 길을 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같은 검찰의 민주수사의 개가에 대해 安변호사는『비과학적이고 독선적인 외곬수사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결과적으로 보여줬다』며『앞으로의 수사는 과학적으로 객관성을 추구해 나가야 이번의 검찰 수사가 일반적인 수사방법이 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盧基昌기자】

殊勳세운 趙炳吉검사

情況증거들어 진술헛점 合理的으로 추궁



◇사건을 해결한 趙炳吉검사。『머리싸움에서 이긴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사건을 해결, 강력사건 수사의 새기원을 이룩하는데 큰공헌을한 趙炳吉검사(37)는 그가 속한 東部지청 형사2부 姜原一부장의 표현처럼 『전혀 검사티가나지않는 학교선생님같은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

차분한 성격이 방대한분량의 경찰수사기록을 한장한장이 면밀히 검토, 鄭載巴군의 용의점을 찾아내는것을 가능하게했고 온화한성품이 완강히 버티던 鄭군의자백을 끌어낸것이다。

趙검사는『솔직히 말해 시간이 워낙 지난사건이라 자백을 받아내기 어려웠다』면서『결국 머리싸움에서 이긴 것이다』고말했다。

그는 또『교과서식 신문방식에의해 자백을 얻어냈다』고도 말했다。

심증이 섰다고해서 자백을 강요한것이아니고 확보된정황증거들을 들어가며 합리적으로 진술의 허점을 추궁해 들어갔고 때로는 인간의양심에 호소했다는것。

특히 수사를도왔던 李鎬旺검사가 면도날같은 질문으로 鄭군을 당혹하게 한후 자신이 부드러운말로 인간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썼다며 공을 李검사에게 돌리는 겸손도 있었다。

이때문에 鄭군이 범행다음날 새벽 현장에 왔다가 돌아갈때 집담을 넘어들어갔다는 전혀 생각지도않았던 진술을 얻어내기도 했다。

趙검사는 이진술을「범인의 일반심리」를 나타낸것으로 자백의 임의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忠北 淸原출신의「전형적인 충청도양반」인 趙검사는 67년 서울법대를 졸업하던해 사시8회에 합격、군법무관을 거쳐 73년 부산지검 馬山지청검사로 임관돼 大田 大邱지검을 거쳐 80년6월 東部지청으로 전보돼 왔다。

지금까지 특별히 큰사건을 맡은적은 없으나 그가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가 없는 것으로 유명할만큼 사건처리가 치밀하고 정확하다는평을 받고있다。이번 사건이 해결되자 동료검사들도『趙검사가 범인으로 단정했다면 틀림없을것』이라며 趙검사의 수사력을 칭찬했다。

張군 수사경찰 할말없다 침통

[경찰] 엄청난 진범이 밝혀지자 이사건의 수사본부장이던 金仁洙서울江南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전담요원들은『무슨 할말이 있겠느냐』며 굳게입을다물었고 江南경찰서는 침통한 분위기에 감싸였다。

이날 서장실에는 상오일찍부터 간부들이모여 범인으로불구속기소한 張慶秀군을 수사했던 경위를 묻곤했다。한형사는 검찰의 발표가있은뒤에도『이상하다。좀 기다려봐야겠다』며 못믿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시 張군을 수사했던 睦모경사는『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가공인물이 아니었고 朴양의 빰에난치흔이『張군의것과모순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에 미련을버리지못했다。

睦경사는 전날 까지만해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과학적 증거를 믿는다』고 말했었다。

公訴유지 자신 日曜日 令狀발부

[검찰] 검찰은 당초사건 수사결과를 일요일인 24일 하오 1시45분께 발표키로 했다가 지검과의 협의끝에 연기、25일 상오9시30분 발표키로했었다。

그러나 金宙漢지청장은 이날상오10시6분 기자들이 모여있는 210호 상황실에 나타나 11분까지5분동안 회견했는데 이같이 시간이 지연된것은 경찰의 사기를 고려、보도자료에 범인鄭을『경찰에서도 당초부터 용의자로 수사한바 있다』는 등을 추가로 삽입하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

金청장은『오랫동안 사건이 해결되지않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해왔다』면서『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있다』는등 몇마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뒤 자리를 떴다。

검찰은 당초 지난24일새벽 鄭군을 긴급구속한뒤 25일중 영장을 신청키로했으나 보안상 문제를 고려한탓인지 24일 하오8시30분 趙炳吉검사 명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당직판사인 徐敷憲판사의 집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소주出庫價 일제引下
眞露이어 9개 會社도
價格경쟁體制 돌입

眞露가 소주값을 인하한데 이어 전국의 9개회사들이 소주출고가를 모두 인하했다。

25일 주류업계가 국세청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복주를 비롯한 전국의 9개소주업계는 출고가를 최저 2.3%에서 최고2.5%까지 내려받기 시작, 이제까지 單一가격으로 묶여있던 소주가격이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소주업계가 이처럼 출고가를 인하한 것은 지난 11일을 기해 소주원료인 주정값이 7.2% 인하됐기 때문이다。

3백60㎖(2홉들이)를 기준할 경우 소주출고가는 현재 眞露가 2백20원66전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금복주와 한일소주로 2백9원11전이며 선양소주가 2백8원77전으로 가장 낮다。

업체별 출고가는 다음과같다。

▲진로=2백20원66전▲금복주=2백9원11전▲한일=2백9원11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⑥

오목이와 목이가 동일인이 아니란 좀더 확실한 단서를 잡기위해선 유원장이나 사모님에게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남다른 이름의 내력을 물어보는게 가장 옳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수지는 벌써 몇년째 고아원순례를 그만두고「오누이의 집」하나를 단골로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물어보지않았다。그것을 물어보긴는커녕 목이에 대한 그녀의 특별한 관심조차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다。심지어 수철이한테도 그가 발견한 목이란 소녀에 대해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다。그녀는 어쩌면 뜻밖에 허약한 자신의 허위를 다달질해서 더욱 견고하게 하기위해 오누이의 집을 다니고있는지도 몰랐다。지금이 그 마지막기회인데도 그녀는 딴청만 부렸고 사모님의 대답역시 신통치 않았다。

『자세한건 이따가 원장선생님 들어오시거던 여쭤보지 그래。선생님은 아이들 가있는 곳을 일일이 수첩에 적어놓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어디로 보낸게 아니군요』

『우리가 데리고있던 아이들은 수지학생도 알다시피 거의가 제앞은가릴만큼 다 기른 애들 아냐? 새로운 고아를 안받은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럴수 밖에 없지만서도…』

사모님이 말끝을 흐리면서 망설였다。

『그래서요?』

『될수있는대로 다시 고아원 신세는 안지도록 했어。말이야 바른대로말이지 우리처럼 가족적인 고아원이 그렇게 있는게 아니거던。머리큰 애를 받으려 들지도 않지만 이렇게 가족적인데 있던 애들이 그런데 가서 배겨나지도못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떠허든 아이들을 자립시키는 방안으로 우리도 노력할만큼 했어』

『그럼 취직들을 시켰단말씀인가요?』

『다 취직이 된건 아니지만 똑똑하고 영악한 아이들은 대개 다 됐어。정안되는 아이들은 여기 저기 알만한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분산해서 맡겼고。취직시키기도 어렵지만 다시 고아원신세 지게하기도 보통일이 아니더군。천신만고다 정해놓은 자리도 본인이 마다면 안보내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딴자리를 구해줬으니까。수지학생도 우리 원장선생님 성미알잖아? 제 에미 애비도 마다한 아새끼들을 곳어다 잘 먹이고 잘 입혔달순 없어도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대접한 것 하나는 알아줘야해』

『네, 알고있어요』

『왜 이렇게 늦으시지。들아오실 때가 지났는데、선생님 오늘 시내 나들이도 취직시킨 아이가 사고를쳐기때문이라니까。내 속으로 난 자식 속도 모르는데 길러준 게 무슨 죄라고 책임까지 지라는지 원。어서 어서 여기를 떠나야 그 골치아픈 뒤치다꺼리를 면하려는지』

사모님이 처음으로 우울해졌다。

『누가 무슨 사고를 냈어요?』

수지는 내심의 긴장이 드러나지않도록 예사롭게 물었다。

『명자라고 생각나?개가 글쎄 취직한지 일주일만에…』

『명자요?네 생각나요。그런 애가 다 취직을 하다니?』

나이도「오누이의 집」에선 제일 어리고 몸이 약질인데다가 지능도 모자라는편인 명자가 취직을 했다는소리에 수지는 경악하고 분노했다。그러나 사모님에게 들킬까봐 두려운 걸 감추고있는 수지는 그런 격분조차 금방 억누를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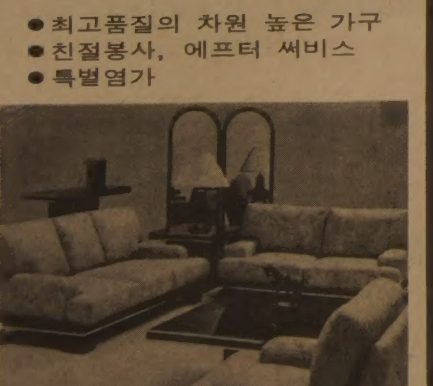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

한국인 유일한
에코시 가구점

- 최고품질의 차원 높은 가구
- 친절봉사, 에프터 써비스
- 특별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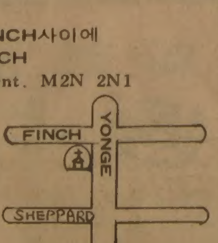


2300 YONGE ST.
(영×에그린톤 센타)
486－0397 김 만 구

성전이전공고

고국을 떠나 이민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교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창설된지 22개월동안 끊임없이 부흥이 되어서 지도하는 중에 시설이 좋고 주차장이 넓고 교통이 편리한 아래 장소로 옮기게 되었읍니다.

일 시 : 1982년 2월7일(주일)
예 배 시 간 : 장년성경공부 : 오후1시
중, 고 청년예배 : 오후1시
장년 주일대예배 : 오후2시
수요일예배 : 오후7시30분
옮긴교회장소 : YONGE ST.의 SHEPPARD와 FINCH사이에 ST. JEORGE'S ANGLICAN CHURCH
주 소 :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M2N 2N1
담 임 목 사 : 박 준 하(751－3611)
교 육 목 사 : 서 인 구
여 전 도 사 : 김 옥 희(752－9860)
장 로 : 엄기옥, 박준옥, 김상진, 고광언
위 임원 일동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서머나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런던지역 지국장입니다

강 상 권 : ☎ 432－5931(B)
681－6925(R)

기사 · 광고 · 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埃·蘇관계 解氷조짐

무바라크 "양국간 大使교환등 고려"

◇헤이그、"美國人의 분노 알리겠다"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26일의 美蘇外相회담에 참석차 24일 회담개최지인 제네바에 도착, 자신이 이회담에서 그로미코 蘇聯외상에게 폴란드 계엄사태에대한 「美國人의 분노」를 전달할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하고있다。【제네바24日 AP=聯合】

蘇기술자66명 곧 到着

알리外相 "애스원댐 터빈補修때문"

【카이로24日聯=綜合】작년9월 이집트로부터 추방된 1천명의 소련기술자들중 일부를 대체하기위한 66명의 소련민간기술자들이 새로 이집트에 파견된다고 카말 하산 알리 이집트외상이 24일 밝혔다。

알리외상은 새로 파견되는 기술자들이 소련이 건설한 애스원댐의 터빈2기 보수공사및 그외 산업프로젝트들에서 일하게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사다트 전이집트 대통령은 작년 암살되기직전 당시 제철및 알루미늄공장등의 건설에 참여하고있던 모든 소련기술자들과 이집트주재 소련대사및 외교관6명을 종파분쟁을 선동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대거추방했었다。

한편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한 西方잡지와의 회견에서 양국간 대사교환문제도 고려되고있다고 말함으로써 지난72년당시 사다트 대통령이 1만7천명의 소련군사고문단의 추방및 蘇聯외교관들의 대거 감축을 명령한이래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에대해 처음으로 해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집트는 지난77년이래 모스크바에 대사를 파견치 않았다。

고 있다。

또한 이집트의 주간정치지 「알 무사와르」는 지난주 이집트가 소련의 외교관 증원요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佛、蘇와 가스輸入계약

美의 強力反對불구

【파리24日AP聯=綜合】프랑스는 23일 소련으로부터 25년간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하는 장기가스수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폴란드 계엄사태발생후 對蘇계약체결을 저지시키려 애써온 미국의 강력한 반대압력을 일축했다。

프랑스 국영 가즈·드·프랑스(GDF)사는 소련과 오는 94년부터 시베리아에서 서독국경까지 부설될 4천5백㎞의 가스공급관을통해 매년 8백만㎥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하는 장기가스공급수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蘇의 西方瓦解기도

中共、佛蘇가스論評

【北京24日AP聯=綜合】중공은 24일 소련이 오는84년부터 연간80억㎥의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프랑스에 공급하는 가스관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방세력을 분할하기위한 시도에서 첫개가를 올렸다고 말했다。

오늘 美·蘇 外相회담

波계엄령이후 최초의 高位접촉

【제네바24日聯=綜合】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26일 蘇聯外相 안드레이·그로미코와 지난해12월 폴란드계엄선포이래 최초의 美蘇고위접촉이될 양국外相회담을 갖기위해 24일 제네바에 도착했다。

이날 특별기편으로 제네바에 도착한 헤이그장관은 도착성명에서 폴란드사태가 악화되고 있는가운데 外相會談이 열리게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폴란드사태와 관련、전체서방진영이 蘇聯의 책임에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는것은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딘·피셔 美국무성대변인은 양국 외상이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 사태를 비롯、아프가니스탄 카리브海 지역문제를 중점논의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蘇聯外相 그로미코는 이번 회담의 의제를 유럽배치 핵미사일문제에서 폴란드문제로 바꾸자는 美國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장관과의 외상회담을 계속할것이라고 蘇聯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23일 말했다。그로미코는 25일하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헤이그、會見서밝혀

"美·蘇頂上회담 早期개최難望"

【워싱턴24日聯=綜合】헤이그 美국무장관은 24일 레이건 美대통령과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간의 미소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지지않을것 같다고 말했다。

미소외상회담차 제네바에 도착한 헤이그장관은 유·에스·앤드·월드·리포트誌와의회견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브레즈네프와의 회담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조기 정상회담이 열릴 가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헤이그장관은 레이건 행정부가 미소간협력을 소련의 국제행위와 연계시키는 이른바『연계이론』을 폴란드사태에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印、5명死傷

佛敎徒들에 發砲

【뉴델리24日AP=聯合】인도최북방 캐시미르州의 라다크지역에 대한 자치확대를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킨 3천명의 불교도들에게 24일 경찰이 발포、1명이 죽고 4명이 부상했다고 인도의 UNI통신이 보도했다。

波의회、戒嚴후 첫召集

25·26兩日間 야루젤스키演說에 관심

【바르샤바24日AP·UPI=聯合】폴란드계엄선포 6주째로 접어든 24일 폴란드가톨릭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군사정부와 계엄령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의회는 25일 계엄령선포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승인과 계엄조치완화문제를 논의한다。

바르샤바방송은 24일 의회가 25·26양일간 보이체흐·야루젤스키군사평의회의장의 연설을 듣는 한편 계엄령의 수정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방송은 계엄령의 수정문제에는 계엄령선포에대한 이의를 행정법정에서 심의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계엄령에 대해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바르샤바25日聯=綜合】폴란드계엄당국자 야루젤스키가 25일 의회연설을 통해 6주째에 접어든 계엄령에 대한 일부 중대완화조치를 발표할것으로 알려졌으나 반정인사들은 야루젤스키의 완화조치가 단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야루젤스키의 의회연설을 앞두고 폴란드는 긴장에 휩싸여 있으며 25·26 양일간의 의회회기중에 일어날지도 모를 소요에 대비、경찰이 지난 주말부터 바르샤바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西獨、波事態 온건노선으로

西方과의 관계벌어질 위험

【본25日AP=聯合】서독외무성의 한 비밀보고서는 현 폴란드사태에 대처하는 서독정부의 온건노선때문에 서독과 서방동맹국들 사이가 크게벌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25일발간된 서독시사주간지 데어·슈피겔이 보도한 이보고서는 슈미트수상에 대해 서구맹방에 보다확고하게 유착하고 동구공산국가들과의 현 데탕트정책을 데탕트의지와 안보요구를 절충한 「안정정책」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전국抵抗委 결성

波勞組、秘密회합

【바르샤바23日AP=聯合】지하활동중인 일부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들은 지난13일 비밀리에 그다니스크에서 회합을 갖고 종전의 자유노조전국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전국적인 저항위원회를 결성한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나토緊急理事會

對蘇·波제재에 공동보조 決議

【브뤼셀23日UPI·AP=聯合】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15개회원국들은 23일 폴란드정세가 지난2주일동안 더욱 악화되었으며 또한「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폴란드군사정부와 소련에 대한 외교·경제적 제재조치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결의했다。

긴급 나토이사회를 마친뒤 발표된 성명을 통해 나토사무총장은「동맹국들이 지난11일의 나토외상회담이후 폴란드정세가 특히 인간의 자유와 노조권리분야에서 더욱 악화되었다는데 견해가일치했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들은 소련과 폴란드에 대한 제재조치는 각국별로 취해질것이나 이날회의는 동맹국가의 공동보조에 초점이 모아진것이라면서 현재 검토중인 제재방안으로는 양국에 대한 차관제공중단、차관금리인상、나토회원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참가불허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戰略기술 對蘇유출에 神經곤두세우는 美國

民間用이 軍事목적에 轉用

西方産 화학약품은 蘇의細菌戰실험에 쓰여

COCOM會議통한 規制강화 合意에 기대

지난여름 美노드캐롤라이나해안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어부는 소련의 수중전파탐지기 부표(浮標)를 끌어올렸다。

그속에서 국방성의 전문가들은 소련의 잠수함에 水溫、조류의 속도、염도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는 정밀한 전자장치를 찾아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이송신을 유도하는 電子칩이 미국RCA社제품의 회로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정부는 이제 미국및 서방기술의 소련유출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은「자본주의자들이 자기네 목을 맬로프도 기꺼이 판다」는 레닌의 말을 회고하게 된것이다。

미국은 20일 파리서 폐막된 COCOM(對공산권수출통제조정위원회)회의에서 전략기술의 수출규제를 더욱 엄격히 할것을 서방동맹국들과 만장일치로 합의했는데 와인버거국방장관은 이에앞서 COCOM을 통해 소련과 동구국가들이 서방기술을 자기네 군사력증강에 어떻게 이용하는가하는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이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것은 민간과 군사목적에 함께 쓰일수 있는 전략기술。

미국은 민간용기술이 군사목적으로 轉用된 여러사례를 포착하고 있다。일례로 美蘇가 데탕트를 유지하던 닉슨정부때 미국은 미세한 베어링을 만들수 있는 정밀그라인더 1백64대를 소련에 판매토록 허용한바 있으며 이기술은 소련의 탄도미사일제작에 이용됐다。

또 프랑스소식통들은 서방의 화학약품이 소련의 세균전실험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협조로 건설된 소련카마江트럭공장의 차량들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에 앞장섰다고 비난하고 있다。

서방전략기술의 對공산권유출은 기업과 산업시설에 잠입한 스파이들에 의해이뤄지는가하면 또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학술교류를통해 이뤄지기도한다。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몰려있는 뉴욕등지에는 각국의 스파이들이 우글거린다。공산국외교기관에 소속된 3천명중 35%、즉 1천명이상은 스파이라는게 윌리엄·웹스터 FBI국장의 얘기。

이들은 정치적 정보는 물론이고 컴퓨터회사등에서 소련이 절대 필요로 하는선진기술을빼내곤한다。

이에 기술유출조사를 강화한 미국세관은 케네디국제공항의 서독행 항공기에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유출되던 리시버를 전차추적장치로 잡아 냈으며 지난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마리안·자카르스키라는 폴란드인이 미국의 前항공회사 엔지니어로부터 9만5천달러를주고 국방기밀서류를 뽑아냈다가 징역형을 받은바있다。또 지난77년에는 게오르기·지머라는 헝가리 물리학자가 캘리포니아공과대학서 3년간에 걸친 정밀컴퓨터기억장치 연구를 시작했다가 「그가 소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原型의 메모리·칩을 소련에 인도하는 임무수행날짜를 전달받았다」는 한헝가리망명자의 폭로로추방된적이있다。

이와함께 국무성은 각 대학들이 외교정책상 공산권학생들을 훈련할때는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한편 중공학생들이 정밀기술연구실에 접근치 못하도록 했다가 학문자유의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이런 강경방침은 서방과 국내기업들로부터 완전한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실정。

따라서 미국은 서방동맹국이 미국의 對蘇전략기술방어노력에 同參하지 않을경우 동맹국과의 기술공유마저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한편 COCOM의 규제강화합의가 이뤄지면 서방、일본과의 합작사업및 공동연구를 대폭 증가하겠다고 회유를 하고있다。【兪爽根기자】

인사이드

泰·버마·라오스 國境

三角지대서 「아편戰爭」한창

아편王 쿤·사 추격위해 泰정규군增員

私兵 4千거느린 人物…현상금5만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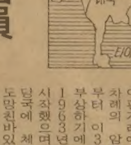
【방콕24日AP·UPI=聯合】타이 최북단지역에서 연4일째 계속되고있는 타이국경수비대와 버마의 아편왕 쿤·사게릴라간의『아편전쟁』은 23일에 있은 타이정규군의 증원과 공군의 지원으로 타이군에게 유리하게 역전돼 쿤·사의 부대들이 버마영토로 퇴각했다고 타이국경수비대가 24일 밝혔다。

타이군대변인은 그러나 아직도 방콕북쪽 4백60㎞의 치앙·라이성 인근지역에서 소규모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전투로 양측모두 1백여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말했다。

방콕·포스트지는 타이버마·라오스를 잇는『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수백만달러 상당의 아편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쿤·사는 동남아최고의 지명수배인물이라고 말하고 그가「샨」통합군(SUA)이라고하는 2천5백~4천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있다고 밝혔다。

이번『아편전쟁』의 발단은 일단의 아편무역상이 21일 SUA의 보호를 받으며 버마로부터 타이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는데 당초 고전을 면치못하던 타이국경수비대는 타이정규군의 증원과 중무장 헬리콥터·輕폭격기등의 지원으로 SUA의 사령부진지를 포위、점령하고 SUA군대를 추격중이다。타이군은 쿤·사에게 2만2천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타이·라오스·버마 세나라가 마주치는『황금의 3각지대』는 아편생산지로서 아시아 유럽 미국등 세계각지의 마약시장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마약조직의 거점이다。



최근 수년동안 타이와 西方마약관계자들은 쿤·사를 마약거래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

또 샨연합군은 버마정부가 샨족과 같은 소수민족을 탄압하고있다는 이유를 들어 버마정부에 대해서도 전투를 선언하고있다。대부분의 마약관계자들은 샨족에 진정으로 자치를 추구하는 세력도 있기는하나 쿤·사의 부대는 단순한 마약운반조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쿤·사는 중국계로 현재 40대중반 내지 후반인것으로 알려져있다。그는 20년이상 아편거래에 종사해왔으며 수차례의 암투를 거쳐 수년전부터 이3각지대의 강자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그는 1963년 사병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1968년 버마당국에 체포됐다가 수년후 도망친바있다。또 타이당국은 지난80년7월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50만바트(2만2천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다。

큰키에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쿤·사는 현재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2천5백~4천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이·버마국경을 무시로 출입하고 있다。

◇바닷가에 墜落、두동강난 美여객기 23일밤 보스턴의 로간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 바닷가에박힌 美國월드·에어 웨이즈 소속 여객기의 동체앞부분이 떨어져나간 모습。【보스턴24日 AP=聯合】

美국토 75% 눈에덮여

死亡者도 4백명 넘어

【뉴욕25日AP=聯合】미국을 휩쓴 눈보라는 미국토의 4분의3(75%)이 온통 깊은 눈속에 파묻혔으며 이같은 눈보라는 포토맥강 항공기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78명을 포함、4백명이상을 사망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이됐다。

그러나 기상예보통은 앞으로도 일부북부주에서는 더많은 강설량을 기록하고 기온도 떨어질것으로 전망하고있으며 대서양연안과 5대호남부지방에서는 눈이 녹아 홍수를 야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로키산맥 서부지방에서는 더운사막공기로인한 눈사태로 유타주에서만도 2천명을 고립시켰으며 캘리포니아州 일대에는 더많은 비를 몰고올것으로 우려되고있다。

外信안테나

◆蘇·헝가리·체코、合同軍事훈련=소련·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육군과 공군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이 25일부터 체코에서 실시된다고 동독의 국영ADN통신이 24일 보도했다。【베를린=AP】

◆美、特別閣僚委신설=로널드·레이건 미대통령은 행정부의 법률적문제들을 조정하기위한 새로운 특별각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특별위원회가 행정부의 법률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AP】

◆시라크市長、佛共和聯合黨首로再選=자크·시라크 파리시장이 24일 드골파인 공화연합(RPR) 전당대회에서 99·1%의 압도적인 지지를얻어 당수에 재선됐다。시라크시장은 이날 RPR당수선거에서 단독 후보였다。【툴루즈(프랑스)=AP】

오늘의 小史 <26일>

▲高宗, 太極旗를 國旗로 定함	(1883)
▲美·日通商조약 失效	(1940)
▲韓·美상호 원조방위조약 조인	(1950)
▲해병대 仁川상륙	(1951)
▲이집트·시리아 合倂에 합의	(1958)
▲서울역 압사사고 발생, 31명사망	(1960)
▲이집트·이스라엘 정식국교수립	(1980)
▲이란, 첫대통령선거 실시	(1980)

메아리

서울에 주재하는 어느 외교관의 약혼녀가 자칭한 과테말라여인등 일당 3명이 싯가 4백50만달러 상당의 각성제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려다가 체포되었다는 외신보도다。

근자 일본의 신문·방송에는 韓國에서 일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그 범행에는 강력하며 조직적인 일본내 폭력조직이 한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동남아에서는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타이、라오스、캄보디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지에서 마약범조직과 태국군사이에 전투가 치열했다는 소식이다。

그곳에서 나온 아편으로 마약을 정제하여 미국、서유럽、아시아각국으로 흘러보내는 마약거래의 주범은 「쿤·사」로 불리는 중국계로서 40대의 키가 크고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 쿤·사는 2천5백 내지 4천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미제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타이군과 교전을 할수 있을 정도라니 그세가 어떠한것 인지는 짐작되고 남음이 있다。

麻藥뿌리

아편을포함한 마약은 기원전부터 있었으나 이를 의료목적 이외에 사용하는것을 사회악으로 인식하게 된것은 19세기 이후의 일로 비교적 역사가 일천하다。

그런데도 마약이 사회나 가정에 미치는、해독성은 너무 심해서 각국정부는 서로 힘을 모아 공급원을 규제하고 형법상 중벌로 엄하며 다른한편으로는 중독자들을 치료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아편전쟁 이후인 1909년、미국의 주동으로 세계 13개국이 모여 국제적인 단속의 방도를 토의하기 시작한것을 시발로 1953년 유엔 역시 국제마약규제위원회를 설치、마약의 단속기구를 재편성까지 했다。한데도 그제조·생산과 불법거래는 여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사범의 적발은 당국에 의해서 끈질기게 지속이 되고있으나 아직 제조와 유통등 마약문제의 해결은 안개속에 있는듯하고 그 발본책은 요원한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 우리를 거친 마약류가 이웃나라에서 적발보도되는 불상사는 다시 없도록 그 사범과 비밀조직등에 철퇴를 가해야 하겠다。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합.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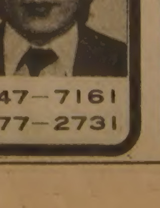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명종 한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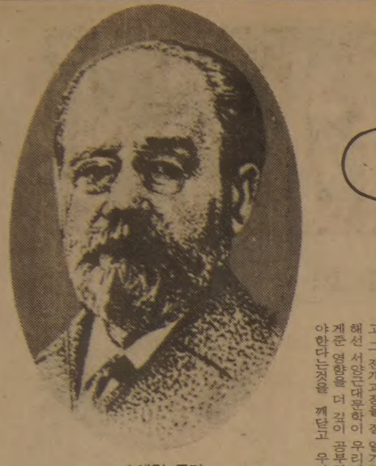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피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에밀·졸라

"「에밀·졸라는 自然主義작가」" 先入觀

그의 眞面目이해에 障碍

自然속서 성장…作品에 神秘·낭만이

鄭明煥교수硏究書「졸라와 自然主義」서 지적

에밀·졸라는 한국근대소설에서 이른바 「자연주의작가」로 이해되고 영향을 미쳐왔으나, 바로 「자연주의작가」라는 斷定이 그의 眞面目을 알게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불문학자 鄭明煥교수(聖心女大)는 최근 연구저서 「졸라와 自然主義」를 두툼한 부피로 엮어내, 자연주의라는 수식어만으로는 감싸지지 않는 巨人的인 졸라의 모습을 밝혀내고 있다. 鄭교수는 지난73년부터 에밀·졸라에 몰두해서 그의 全作品을 섭렵하고 그의 작품을 연구한 논문들을 공부해 왔다.

◇에밀·졸라에 9년동안 沒入, 그의 숨겨진 眞面目을 찾아밝힌 鄭明煥교수.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근대소설의 전개과정을 나름으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전개과정을 잘 알기위해선 서양근대문학이 우리에게준 영향을 더 깊이 공부해야한다는것을 깨닫고 우선 에밀·졸라를 읽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틈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에밀·졸라의 커다란 세계에 끌려들어가고 말았어요. 그의 세계를 배우는 9년동안 우리가 졸라의 진실한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지요.』

鄭교수가 이해한 에밀·졸라의 참 모습은 「신비스러운 力學관계속에서 펼쳐지는 二重性」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학계는 졸라를 삶의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자연주의의 소설가로 이해하고 있다. 졸라에 대해 좀더 깊이 연구한사람이라도 유전, 환경등과 因果관계를 기틀로 삼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소설을 쓴 작가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습은 졸라의 반쪽의 모습일 뿐, 다른 한쪽은 삶의 더럽고 어두운 장면을 묘사하는 성질과는 동떨어진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모습을 갖추고있다.

우리에게는 그가 지니고있는 이같은 신비와 낭만이 가진 깊은뜻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집성한 「루공·마카르」총서 20권과 「루공·마카르」총서 이전에 낸 「테레즈·라캥」, 총서이후에 낸 「세都市」「四福音書」를 두루 읽어 해석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밀·졸라는 본래 시골에서 자라나 大自然이 주는 신비로운 樹液을 마시며 성장했어요. 그의 全作品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읽으면 초기작부터 최후작까지 자연의신비로운 순환, 생성원리가 묘사됩니다. 나무가 자라나고 짐승이 새끼를낳는 모습에서 자연이 자라고 살쪄가는 것을 보며, 自然과 親和하고 그 親和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끝없이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詩的이며 환상적인 부분이 자주 나타나곤해요. 삶과 사회의 어두운면을 병적으로 과장했다고 비판되기도 하는 「나나」「선술집」등을 세심히 읽어 보면 그같은 병적인 어두움밑에도 신비스러운 그의 우주관과 꿈에 취한 모습이 겹쳐 있음을 보게됩니다』

우리近代小說에 끼친 영향추적위해
73년부터 그의 全作品·論文집중조사
初期엔 의식적으로 「自然科學」도입

에밀·졸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초기에는 의식적으로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 삶의 추악한 면을 그리는 자연주의작가가 되려고 애썼다. 그는 19세기 후반기의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빈곤의 문제, 계층간의 분열, 부르좌지의 俗惡性등을 뼈아프게 느껴 의식적으로 인간의 빈곤과 추악함과 粗惡함을 강조했다. 이때문에 「루공·마카르」총서20권은 19세기 후반기 프랑스사회의 壁畵라는 社會史的인 의미도 띠고 있다. 그러나 졸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루공·마카르」총서의 초기작에서도 신비한 꿈을 꾸고 있는 졸라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며 후기작으로 가면 갈수록 꿈을 꾸는 詩的인 모습이 本色으로 두드러져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루공·마카르」의 마지막 작품「大地」「의사 파스칼」은 삶의 아픔을 고발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완전히 꺼져가고 졸라가 가슴속에 품고있는 꿈과 낭만과 신비가 작품을 지배한다. 만년에 쓴 「四福音書」와 「세都市」는 꿈이 현실세계를 완전히 삼켜 버려 자연주의 작가의 정반대편에 선다.

文学話題

『그런데 졸라의 꿈이 현실을 삼켜버려 환상적이기만한 만년작품들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의 二重性, 즉 아픈 현실을그리는 자연주의작가로서의 성질과 우주의꿈과 신비를 그리는 낭만주의작가로서의 성질이 서로 복합돼 긴장관계를 이루는 작품들이, 한결 재미있지요. 그 작품들을 읽으면 졸라가 文學史라는 감옥에서 해방돼서 오늘우리의 문학에서 다시살수있는 완벽한 작가라는 것을 느낍니다. 19세기 후반기에 묶여있는 文學史的인 작가가아니라 오늘의 현재에도 다시 큰 문제들을 안고 도전해오는 巨人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어요』

鄭교수는 그유명한 드레퓌스사건에 뛰어든 졸라의 모습만을 이해하는 독자가 적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드레퓌스사건은 그의 자연주의적인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全文學의 방대한 부피에 비하면 작은 한삽화에 지나지 않는다.

鄭교수가 낸 「졸라와 自然主義」는 세부분으로 나뉘어 제1부 「루공·마카르에 대한 총론」 제2부 「自然과 자연주의」 제3부 「한국문학과 日本문학의 자연주의」로 꾸몄다. 3부에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자연주의문학이 프랑스에서 생겨난 자연주의문학과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馬桂淑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㊴

父親의 延專校長 사임

日帝의 強要에 못이겨 부득이

延禧전문학교를 일본사람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갖가지 고충을 겪었던 아버지는 1941년2월25일자로 日帝의 강요에의해 교장직을 사퇴했다.

총독부는 마라토사號를타고 떠날 수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일부러남은 미국인을 더욱 탄압했다. 설상가상으로 美·日관계가 점차 악화돼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후임교장은 尹致昊였다. 미국에 유학한 일이있는 그는 延禧의 실정을 동정하고 있었고 총독부에서도 명사대우를 하는 터이므로 학교를 지키는데는 다시없는 적임자로보여 이사회가 천거한 것이었다. 日本青山학원교수에서 延專으로옮겨와 성서와 일본어를 강의하고있던 기독교인인 마쓰모또(松本卓夫)란 사람이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국에 온뒤 일본의 對韓정책에 상당한 쇼크를 받았다고 술회하기도한 그는 이때 부교장이 되었으나 2년뒤 일제에의해 쫓겨나는 몸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는 명예교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교수직은 그대로 가지고있었고 이사회에서 미국북장로교 선교부 파견 이사로 계속 선임되었다.

延專이사회는 아버지의 업적에대해 감사를 표함과동시에 사표수리는 어디까지나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보고서한을 북장로교 선교부에 보냈다.

「延世大學校史」에 실린 그내용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는데 다소 도움이될까 해서 여기 옮겨본다.

『延禧전문학교 이사회일동은 원한경박사가 부교장과 교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해온데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그 사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직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그분외에 적임자가 한국에는 없는줄로 압니다. 본교는 그분의 숙부 존·T·언더우드의 회사와 그분의 부친 원두우목사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룩되었읍니다.

원한경박사는 한국땅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더불어 성장해 한국어가 모국어와 다름없이 능통할뿐 아니라 어느 외국인 보다도 한국민의문제와 생활상태를 잘알고, 또한 동정하고 있읍니다.

그분은 부친이 남겨놓은 이위대한 사업에 그의 온정성과 심혈을기울였읍니다. 우리 이사일동은 오늘과같은 상황에서는 그분이 부득이 사임하지않을수없는 단순한 이유로써 사임하게된것을 심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지않게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명예교장에 추대되었으며 이학교에서 교수로서 봉직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들은 서울외국인학교 동창생으로 그가 영국런던대학, 내가뉴욕해밀턴대학을 마치고 각각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시기가 같은 39년여름이었다. (결혼식은 41년 7월10일)

후임에 尹致昊…아버지와 나는 敎授로 계속근무

더우기 고마운것은 그분의 장남 원일한(H·G·언더우드)이 최근 영어교수의 인가를 받게됨으로써 원씨3대가 본교의 창립자·교장·교수로 연임케되어 학교에 큰 광영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교와의 이러한 유대가 오래도록 계속되어 이 불안정한 시대에 권고와 헌신의 혜택을 누릴수있게되기를 바라는바입니다』

이 서한을 낼당시의 이사회는 한국인7명, 미국인11명, 일본인5명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독교력은 부활절에앞서 사순절을 맞이하게된다. 水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의 첫金요일이 「세계여성 기도의날」로 정해져있다.

세계여전도회는 기도의날 행사를 각나라가 돌아가며 주최토록했는데 마침 1941년의 순서가 한국이었다.

이 준비를 위해 한국에있는 기독교 여자교우들이 모두 협조를 했지만 가장 바쁜것은 선교사 부인들이었다.

그런데 총독부에서 이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공교롭게도 사순절에맞는 첫金요일이 3월1일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사람들은 1919년에 일어났던 3·1독립만세운동을 연상, 왜 하필이면 3월1일에 기도의날 행사를 갖느냐는 것이었다.

선교사입장에서는 사순절 첫金요일이 3월1일과 겹치게된 까닭을 알턱이 없다. 그런데도 관계자들이 매일같이 불려가 조사를 받으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어머니도 여러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고나왔다. 마라토사號에 타지않고 한국땅에 남기까지는 그만한 각오가 돼있긴 했어도 그시련은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었다.

담보금 積立면제 來1일부터 實施
延支給수입 거래

재무부는 1·14경기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마련했던 D/A유전스등 延支給수입거래(분할지급수입포함)에대한 수입담보금 적립면제를 2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종래 상품등을 수입할때 수입금액의 5~20%의 담보금을 적립해야했던 자금부담이 없어져 수입비용및 자금부담을 덜게됐으며 현재 적립되어있는 3천억원의 담보금을 다시찾아 이용할수있게됐다. 이미 적립된 수입담보금은 현행 규정대로 앞으로 6개월에걸쳐 수입대금이 결제될때마다 기업에 내주게된다.

차관자금 국제入札
국내業體 53%차지

세계은행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자금에의한 정부국제入札에서 국내업체의 落札率이 늘고있다.

25일 조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한햇동안 世銀, 아시아開發銀, 日輸銀외협력基金등 차관자금에의한 국제입찰을 통해 국내업체가 참여할수있는 차관자금에 집행된 官需外資구매액 1억5천8백80만달러중 53%인 8천3백40만달러가 국내업체에 낙찰되었다.

81년 최우수棋士로 趙治勳9단을 선정

일본 바둑계에서 맹활약중인 趙治勳9단(名人·本因坊)이 일본기원이 주관하는 프로 바둑기사의 최고영예인 81년도 최우수기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536-1692

政局往來

◆民正 정상근무, 국민은 勤務않아

舊正인 25일 公休日 지정을 반대한 民正黨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여는등 平日과 다름없이 정상근무를 했고 公休日 지정에 찬성한 野黨중 民韓黨의 사무처는 오전근무만했으며 국민당은 아예 출근조차 하지않아 各黨 各態.

權正達사무총장은 『구태여 公休日로 지정하여 二重과세를 公式化하는것보다 舊正을 쇠고싶어하는 사람들은 희망대로하면 될것아니냐』면서 『舊正의 公休日지정 주장에는 하루를 더 놀고싶은 심리도 있는것 같다』고 분석했고, 李鍾贊총무는 『이런식으로 10여년 흘러가면 新正쪽으로 기울어지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民韓黨의 중앙당사에는 辛相佑사무총장과 사무국요원들이 나왔다가 하오에는 모두 汝矣島의 의원회관으로 일찍들어갔으며 사무실도 텅빈상태.

한편 舊正公休日을 제창했던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등 간부들은 대부분 自宅에서 하루를 보냈고 중앙당사처요원들은 舊正休전의 안을낸 취지에따라 출근하지않았다.

◆他國은 갈라졌다가 합쳐지는데…

李敏涔 民正黨대표위원은 25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全斗煥 대통령의 民主統一방안을 「영원한 성경」이라고 비유하면서 전체黨員이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당부.

그는 이날 中執회의를 끝내면서 『다른나라는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기도 하는데 유독 우리만은 36년간이나 分斷의 아픔을 甘受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南北간에 통일제의가 많았지만 이번 제의야말로 영원한 聖經으로 가슴에 간직해야할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李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尹碩淳사무차장이 黨務보고에서 정책위의 원세미나 계획을 설명하자 『그것은 院內사항인데 왜 사무국에서 보고하냐』고 물으면서 『업무分擔의 混線이 있는것 같으니 사무총장과 院內총무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라』고 지시.

◆「政黨정치의 定着化」에 焦點

民韓黨은 오는 28일에 있을 柳致松총재의 年頭기자회견에 대비, 본격적인 文案起草작업을 진행중인데 이번 會見은 「정당정치의 定着化」에 焦點을 맞추고 이에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듯.

起草위원들이 이 부분에 焦點을 맞춘것은 『새정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여건이 先行돼야한다』는 柳총재의 평소 持論에 따른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당정치의 定着化」를 위한 방안으로 與野의 均衡있는 발전과 健全한 관계定立이 강조되리라고.

특히 柳총재가 이번 회견에서는 『口號보다는 內實있는 정책』을 강조해온 점으로 미루어 창당이래 기본목표인 정치규제자解禁문제외에도 文化의 自律과 창의, 大學入試를 비롯한 교육제도의 전반적 개혁, 경기浮揚策등 경제難局의 타개책등 현안의 문제들이 집중 事論될 것이라고 한 起草위원이 전했다.

한편 李義永총재비서실장은 국민당이 民韓黨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82석을 가진 정당이 25석을 가진정당에 일일이 신경을 써서야 되겠느냐』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盧外務、5시간동안 36명의公館長 릴레이 面談

◆身上문제에서 公館운영 고충까지

盧信永외무장관은 25일 장관실에서 이번 公館長회의에 참석했던 36명의 大使들을 1人當 5분씩 차례로 릴레이式 單獨面談.

상오9시부터 咸永煮 駐뉴질랜드大使를 스타트로 大洋洲·美洲·日本順으로 진행된 이날 面談은 당초 정했던 3시간을 무려 2시간이나 초과할정도로 진지하게 계속됐는데 이자리에서 各대사들은 개인적인 身上문제, 公館운영의 고충과 요망사항등을 다양하게 口頭건의했다는 소식.

이에따라 이날 외무장관실은 面談의 차례를 기다리는 대사들로 盛況(?)을 이뤘는데 本部간부들은 이들 공관장가운데는 오는봄에 異動대상이 포함되어있어 면담시간이 길어졌을지모른다고 분석하기도.

한편 면담도중 외무부에는 공관장회의의 참석멤버가 아닌 浩中駐말레이지아대사가 이번 눈길을 모았다.

◆舊正맞아 部處別 출근상황 점검

新正單一過歲를 추진하고있는 정부는 舊正인 25일 각 部處별로 직원들의 출근상황을 체크하는등 二重過歲방지대책에 苦心.

이에따라 일부部處는 출근부를 확인하고 출근의 眞否를 보다앞서기 했는데 총무처는 이날 各部處총무과장을 불러 舊正날의 출근상황을 체크하도록 지시.

한편 新正過歲방침을 적극적으로 밀고온 金容然총무처장관은 이날상오 간부회의에서 해당국장으로부터 歸省客數가 줄고 舊正분위기도 차분히 가라앉았다는 보고를 받고 『舊正은 이제 명절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舊正공휴일지정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회전반이 발전, 개선되고있기때문에 5·6년내에 新正單一과세가 완전히 정착될것』이라고 내다 보기도.

歐洲 GSP受惠고전
우리輸出 80년代들어 홍콩等에 밀려나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이 EC지역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지역에서 실시하고있는 일반특혜관세(GSP)제도에 더욱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할것으로 지적되었다.

25일 貿公에따르면 75년이후 EC지역에서 GSP受惠를 가장 많이 받아온 우리나라는 80년들어 유고, 홍콩에 밀려났을뿐 아니라 섬유류의 경우 EC쿼터물량을 전부 소진하면서도 쿼터물량의 12%에 불과한 GSP受惠도 채우지 못한 품목이 防風등 8개품목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류작성 미비로 GSP이용자격이 박탈된경우가 10%에 이르고있다. EC지역은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해 GSP혜택을 주고있으며 이중 1백25개 관심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관심품목으로 분류, 비관심품목을 적극개발하면무제한의GSP혜택도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産業體 국제경쟁력 弱한건
"비싼 에너지過의 존탓"
動資部 日·中과比較

우리나라산업체는 日本이나 臺灣에 비해 비싼에너지를 사용,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의 하나인것으로 밝혀졌다.

동자부가 분석한 「韓·日·中의 국민총생산에대한 에너지투입비」자료에 따르면 생산단위당 평균 에너지투입 비율은 우리나라 기업체가 1·00인데비해 臺灣기업은 0·94, 日本기업은 0·49로 일본과대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비해 省에너지화 되어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기업은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있어 국제경쟁력이 뒤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벙커C油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1·00인데비해 臺灣은 65, 日本은 82이고 전력요금도 우리나라가 1·00인데비해 臺灣은 80, 日本은 1·06으로 나타났다.

동자부는 이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체들이 경쟁대상국에 비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데다 비싼에너지를 사용하고있는 자료분석에따라 기업체의 원가절감을위해 값싼원유도입을 적극추진하고 脫石油政策도 병행하기로했다.

流星의 賦
<29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㉓

서당(西堂)은 유명한 학승(學僧)이었다. 서당은 히데쓰구의 학예취미를 권장하고 히데쓰구의 명령이라고 하여 희서(稀書)진서(珍書)를 모았다. 그리고 애써 일본기(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기(續日本紀)등 35권을 모아 조정에 헌납하기로하고 야마또제사(大和諸寺)의 승려 17인을 불러 겐지모노가따리(源氏物語)를 필사시키기도 했다.

『무식한 놈』이라고 해서 공경들 사이에 기피당하기도 한 히데쓰구가 이런 노력으로 인해 좋은 평을 받게도 되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허영심의 소작이라고 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후지와라세이까(藤原惺窩)같은 학자는 몇번이고 히데쓰구의 초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학문을 더럽힌 놈』이라고까지 그는 히데쓰구를 혹평했다. 후지와라는 후일 조선의 학자들과, 조선이 일본을 정복하여 유교의 정통을 일본에 세워야 한다고까지 의논한 사람이다.

『히데쓰구는 죽을 것이라』뿐만 아니라 후지와라는 고 예언했다. 수길에게 실자(實子)가 탄생했는데 뻔뻔스럽게도 취락제에 앉아선 사직할 생각도 않고 있으니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란게 후지와라의 관측이었다. 후지와라뿐 아니라 경도에 있는 공경들은 숨을 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기무라만은 『태합전하께 관백직을 사임하라는 말이 있기전엔 사양할 필요가 없읍니다. 원래 관백직은 다이묘오(大名)와는 달라, 조정의 직이며 천자가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그만 둔다고 하면 태합전하 훈계의 제3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하오니 결단코 경솔한 짓이 없도록 하십시오』하고 못을 박았다.

히데쓰구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똑바로 말하면 기무라의 호신책에서 나온 말에 불과했다. 히데쓰구가 관백직에서 물러나면 기무라의 갈곳이 없는 것이다.

한편 히데쓰구는 자기가 무인(武人)이라는것을 과시하려고 애썼다. 자기의 부하는 물론 풍신가의 제후가 무인으로서의 그를 낮추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대한 반응이었다.

(내가 비상한 무인이란 것을 천하에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돋아났다.

히데쓰구는 병법(兵法)이라고 하는 당시유행의 개인투기(個人鬪技)의 모임을 빈번히 가졌다. 거리에 고찰(高札)을 걸고 병법자를 모으기까지 했다. 취락제를 병법유행의 중심지로 만들 참이었다. 원래 수긴은 이런 따위의 병법, 즉 검술을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히데쓰구는 그 역(逆)을 가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를 현시(顯示)하려고 했다.

해보니 재미가있었다. 피가흐르고 사람이죽었다. 죽음이없는 시합은 싱거웠다. 드디어 시합엔 진검진창(眞劍眞槍)을 써야만하는것으로되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끝나는 그시합을 히데쓰구는 많은 처첩(妻妾)을 거느리고 구경했다. 그 너무나 처참한광경에 여자들이 비명을올리고 기절이라도하면 히데쓰구는 자존심을 크게만족시켰다는 듯

『여자란 할수없는 거지. 이것을 못봐내서 저런꼴이 된담』

하고 깔깔대며 웃었다.

西獨、포르노産業 規制강화
當局、피프·쇼新規許可안해

자유스럽던 서독의 포르노산업이 엄해지려하고있다. 대법원격인 서베를린 연방행정재판소는 최근 『피프·쇼』를 위한 신규공연장소 설치허가를 내줄수없다고 판시했다.

피프·쇼는 미국으로부터 건너와 서독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나체·쇼의 하나. 원형무대 둘레에 조그만 방을 칸칸이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그곳창문을 통해 무대위의 적나라한 장면을 엿보게하는 섹스쇼의일종이다. 말하자면 『몰래 훔쳐봐야 실감나는』 샛꾼들의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것이다.

어떤 피프·쇼장소는 손님이 방에까지 무료로 들어간뒤 동전구멍에 1마르크를넣어야 무대쪽을 향한 창문이 1분간 열리도록 해놓았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 (B), 286-1546 (R) M3B 1Z3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 CHINA HOUSE

韓美軍事훈련 北韓참관 제의

2~4월「팀·스피리트」에 招請

유엔側, 어제 停戰委서 "防禦훈련 直接보도록"

스톰스少將 "答禮형식 要請땐 北韓방문"

招請대상자 北韓 4명·中共 1명·監視위원등 9명

【板門店=申鉉鈺기자】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 제임즈·G·스톰스 美해군소장은 23일 상오11시 판문점에서 열린 제4백10차 정전위 본회의에서 오는 2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실시될「팀·스피리트82」훈련참관을 위해 정전위 공산측 수석대표 韓柱庚과 중공대표 葉昌琛를 포함한 5명의 대표단이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등 4명의 중립국감시위원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고 제의했다. 유엔군이 남한지역에서 갖는 군사훈련에 공산측업저버를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톰스제독은 이날 올들어 처음으로 공산측요청에 따라 열린 정전위본회의에서 공산측수석대표 韓柱庚이『유엔군측은 올들어 SR71고공정찰기로 15차례나 북한지역정탐을 해오고있으며 주한미군에 5~6백명의 전자장비부대를 증원배치하고, 2월부터「팀·스피리트82」훈련을 실시하려는것등은 美본토와 태평양지역의 미군을동원한 침략전쟁준비라며 팀·스피리트훈련에대한 신랄한 비난이 있은다음 이같은 제의를내놓았다.

스톰스제독은 이 제의가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초청의 목적은 팀·스피리트훈련이 한국의 방위를위한것이지 결코 전쟁도발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산측대표단이 직접눈으로 봄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톰스제독은 공산측대표단이 방문의사를 밝힐경우 이에따른 구체적인세부 사항을 협의하기위해 비서장회의 개최를 요구할것이라고 말하고 만약공산측이 이 제의에 대한 어떤종류의 답례초청이 있을경우 유엔측은 이를 쾌히수락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군측은 지난해 12월28일에 열렸던 제4백9차정전위 본회의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북괴의 비난에대비, 팀·스피리트82훈련의 일정을 통보하고 이훈련이 정당한것임을 알려준바있다.

이날 유엔측이 초청한 5명의 공산측 대표단은▲韓柱庚북괴군소장▲김용만 소장▲허헌대좌▲길두만대좌▲葉昌琛중공대표등이다.

한편 이날 정전위 제4백10차본회담은 하오1시44분까지 1시간44분간 속개되었는데 회의장주변에는 우리측 내외신기자 44명과 공산측에서는 소련의 프라우다신문과「아뻬엔(새소식)통신」의 두특파원과 북한기자등 10여명이 취재를하며 관례에따라 담소를 하기도했다.

우리측 기자들은 全斗煥대통령의 1·22제의를 북괴기자들이 알고있는지 여부에 특히 관심을갖고 질문을 던져봤으나 북괴기자들은『기자가 그런것도 모르겠느냐』며 얼버무렸지만 거의가 1·22제의에대한 내용을 잘모르고있는것 같아 보였다.

또 검은가죽코트에 흰털모자를 쓴 프라우다 특파원은『TV로 보았다』고 간단히 말한다음『조선의 통일은 조선사람끼리 얘기해야한다』고 말머리를 돌렸다.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 제임즈·G·스톰스제독。공산측대표단에게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고 직접 한국에와서 참관할것을 전격 제의했다。

◇공산측 수석대표 韓柱庚이 유엔군측의「팀·스피리트 참관을 위한 초청제의」가 있은 직후 고개를 뒤로 젖혀 비서장과 귀엣말을 나누고있다。<韓隆기자찍음>

해설

緊張완화위한 첫 軍事提議

유엔군사령관이 팀·스피리트 훈련 참관초청을 제의한것은 바로하루전 金斗煥 대통령이 천명한 1·22제의에이어 한반도 긴장완화를위한 획기적인 처사로 볼수있다.

이날열린 판문점 정전위 4백10차본회의는 공산측의 요청으로 열린것이기때문에 유엔측은 공산측이 보나마나 팀·스피리트82훈련에 대해 세찬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대한 통쾌한 응수로 이 제의를 하게된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측은 이보다앞서 지난12월28일에 열린 제4백9차 본회의에서 팀·스피리트82훈련이 2월13일~4월26일사이에 예년과비슷한 규모로 열릴것임을 통보, 공산측에대해 이훈련을 둘러싼 시비의 여지를 없애려 노력했다.

제임즈·스톰스 제독은 4백10차 본회의에서 공산측이 행한 상투적인 팀·스피리트82 훈련비난에 대해『유엔측은 지난해12월 북괴가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대한 시비를 한바 없다』고 응수하고『능률적인 군대는 언제나 충실한 훈련을 갖고 충분한 병력과 고도의 장비를 갖추기위한 당연한 노력을 하게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점에서 4백9차 본회의를 통해 통보한 팀·스피리트82 훈련일정도 이훈련이 정당한것이며 정전협정위반이아니라는점을 공명정대하게 밝히기위한 것이었다고 스톰스제독은 말했다.

유엔군사령관이 사상 처음으로 전격제의한 팀·스피리트82 공산측대표 초청에 대한 북괴측의 응답은 기다려봐야겠지만 이제의는 全대통령의 1·22제의에이어 한반도 긴장완화를위해 큰의의를 갖게 하는것임에 틀림없다.

비록 이 제의를 듣는 순간 공산측은 일제히『와아』하고 큰소리의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웃음소리는「비웃음半、놀라움半」으로 들렸다.

民正 25일中央執委
統一방안 中長期具體案추진

民正黨은 黨총재인 全斗煥 대통령이 國政연설에서 제시한 民族和合민주통일 방안의 後續조치와 집권당의 책임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中長期계획의 구체화작업을 위해 25일 상오10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民正黨은 이에 앞서 23일 黨평화통일위원회、정책연구소、외교안보이사회및 정책위、외교분과위원회를 잇따라 열고「統一헌법제정제의」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이를 홍보하기위한 정당외교、의원외교의 활동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平和統一위원회는 黨內의 각종기구와 소속의원들이 歸鄕활동을 통해 국민啓導활동을 강화、국민의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오는 2월10~11일 이틀간 열리는 통일문제 국제심포지엄에서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정책연구소、외교안보이사회는 全대통령의 民主통일방안중「민족통일 협의회의」의 구성과「南北 기본관계에 관한 暫定협정」「통일헌법」내용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으며 정책위、외교分委는 정당외교와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全대통령의 對北제의를 대외적으로 홍보、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등을 집중토의했다.

國會、統一憲法제의 支持결의
각국議會·국민에 協調 요청

劉총리·禹국회사무총장 任命승인

국회는 23일하오2시 본회의를 속개、全斗煥 대통령의 統一憲法제정제의를 적극지지하면서 北韓에대해 이의수락을 촉구하는한편 세계각국議會및 국민들에대해 이의실현을위해 협조해줄것을 희망하는내용의「全斗煥 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제의 支持결의안」을 外務委原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회의는 이어 劉彰順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총리임명동의안과 禹炳奎국회사무총장서리에 대한 임명승인안을 無記名비밀투표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날 劉총리서리는 在席의원2백63명중 2백36명의 贊成을、禹총장서리는 在席2백59명중 2백38명의 贊票를 얻었다.

본회의는 이에앞서 새로 의원직을 승계한 金裕祥의원(民正·全國區)의 의원선서를 받았다.

南北總選 겨레念願 平統 지역별決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23일 전국의 2백24개 市·郡·區별 지역협의회 모임을갖고 全斗煥 대통령이 國政연설을 통해 천명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고 北韓당국이 즉각 수락토록 촉구하는 결의문을채택했다.

결의문은『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실현이 反目과 對立의 南北관계를 신뢰와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첩경』이라고 재확인하고『통일헌법에 입각한 남북한 자유총선거구상이 겨레가 염원하고있는 自立、民主、平和통일에 이르는 가장합당한 길임을 확신하고 그실현을위해 온갖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다짐했다.

결의문은 또『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이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치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北의 긍정反應을 기대"

美國務省 논평

【워싱턴22日=曺淳煥특파원】美국무성은『全斗煥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중요한 새 제안을 내놓았으며 우리들은 작년 북한의 金日成을 만나겠다는 全대통령의 초청과 함께 이 건설적 제안들을 환영하며 이것이 평화·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전망에 의미깊게 기여할것』이라고 23일 공식논평했다.

美국무성 東北亞課의 메너드대변인은『북한이 이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오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北韓의 反應이 주목된다" 日신문들 크게報道

【東京23日=宋孝憲특파원】일본의 신문방송은 全대통령이 제안한 1·22제의를 해설을 곁들여 크게보도하고 이에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을비롯한 일본의 5대신문들은 23일자 조간에서 1면톱또는 중간톱으로 해설을 곁들여 서울발신으로 보도했으며 한국의 남북통일에대한 새로운 제안은 평화통일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이 이제의를 하나의 정치적인발언으로 묵살하지 말기를바라며 대화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구체內容담긴 提議 NYT報道

【뉴욕22日=金泰雄특파원】뉴욕·타임즈는 22일『서울、북한과 대사교환 제의』라는 제목으로 全대통령의 南北각료급 全權대표교환제의를 크게 보도하고『남북한은 53년 한국동란 종전후 통일에대한 갖가지 제의를 해왔으나 선전에 주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제의처럼 구체적인것은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佛르몽드紙 보도 매우重要한 제안

【파리22日=金聖佑특파원】프랑스 유력지 르·몽드지는 23일자 기사에서 全대통령의 南北통일에 관한 제의를 상세히 보도하고 한국측은 이것을 南北韓관계를타개할 매우중요한 제안으로 보고있다고 보도했다.

北傀 계속침묵

【東京23日=聯合】北傀의모든 보도기관들은 全斗煥 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제의에 대해 23일상오현재까지 아무런 언급도하지 않고있다.

中·高校 공납금 引上

新學期에 中學 10·9、高校 18·8%

중학 4만5천60원으로 / 고교 7만5천8백10원 서울지역 平準지역

문교부는 82학년도 중·고교공납금을 지난해에비해 중학교는 10·9%、고등학교는 18·8%씩 인상했다.

이에따라 1기분 공납금이 중학교는 1급지(시·읍지역)가 81학년도의 4만1백40원에서 4천9백20원이 인상된 4만5천60원이 되고 2급지(면지역)는 2만5천9백80원에서 2만8천7백70원、3급지(도서·벽지)는 2만2천1백40원에서 2만4천3백60원이 됐다.

고등학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20개시 평준화지역의 경우 1기분공납금이 6만2천8백50원에서 1만2천9백60원이올라 7만5천8백10원이되고 비평준화지역의 시·읍지역은▲공립인문고 5만8천7백10원▲공립실업고 3만9천6백90원▲사립고 7만2천8백70원이됐다.

문교부는 또 사립국민학교와 유치원의 82학년도공납금은 지역간·학교간의 실정에 따라 공립국민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수준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시·도교육감이 인상조정토록했다.

문교부는 이번 공납금인상에 대해『월1만5천원의 교직수당인상과 학교운영비의 30%인상등으로 평균30%의 공납금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專門大도 引上

문교부는 23일 82학년도 전문대 등록금을 지난해에비해 국·공립 신입생은 8·7%、재학생은 4·4% 인상하고 사립은 10% 범위에서 대학당국이 자율 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공립 전문대 신입생의 한학기 등록금은 81학년도의 23만8천원에서 2만원이 오른 26만원선이 되고 재학생은 2학년의 경우 25만원、3학년은 16만원선이됐다. 사립은 지난해의 30만4천원에서 10%인상을 추정할경우 34만원선이 된다.

◇82학년도 중·고생공납금액 (1期3개월분) 단위=원

學校別	級地	授業料	育成會費	自律的經費(學徒護國團費)	實驗實習費	合計	81年度公納金
中學校	1 級地	37,650	6,660	390	360	45,060	40,140
	2 級地	21,360	6,660	390	360	28,770	25,980
	3 級地	16,950	6,660	390	360	24,360	22,140
公立人文高	1—가級地	64,770	9,000	1,290	750	75,810	62,850
	1—나 〃	47,670	9,000	1,290	750	58,710	49,170
	2 級地	40,620	9,000	1,290	750	51,660	43,530
	3 級地	32,940	9,000	1,290	750	43,980	37,380
公立實業高	1—가級地	64,770	9,000	1,290	750	75,810	62,850
	1—나 〃	28,650	9,000	1,290	750	39,690	33,960
	2 級地	26,130	9,000	1,290	750	37,170	31,950
	3 級地	22,350	9,000	1,290	750	33,390	28,920
私立高	1—가級地	64,770	9,000	1,290	750	75,810	62,850
	1—나 〃	61,830	9,000	1,290	750	72,870	60,510
	2 級地	57,000	9,000	1,290	750	68,040	56,640
	3 級地	44,970	9,000	1,290	750	56,010	47,010

▲1급지=시·읍지역 ▲2급지=면이상지역 ▲3급지=도서벽지▲「가」급지=평준화지역 ▲「나」급지=비평준화지역

社會漫評

뿌리

地平線

『우리 사랑하는 애인이 아닌걸』—작년 12월11일 동베를린 교외 후베르투스토크별장에서 서독의 슈미트 수상이 농담을던졌다. 동독의 독재자 호네커와 좀더 가까이 서달라는 사진기자들의 요청을 받고 던진 농담이다。그는 11년만에 처음으로 동독의 통치자와 만나러 온것이었다。70년 브란트수상이 동독수상 슈토프를 만나러 에르푸르트로 간뒤 처음이다。▼작년 8월13일로 탄생 스무돌이 지난 베를린 장벽에는 2백60마리의 잘 훈련된 세퍼드 개들이 배치돼있다。장벽의 길이는 4백리가 넘는 1백66㎞。한때 동독측은 개들을 긴 가죽끈으로 묶어 고정배치 시켰었다。그러나 탈출자들은 이끈으로 개의 목을 졸라죽이는 방법을 썼다。동독측은 뒤늦게 개들을 풀어놔 자유롭게 뛰게했다고 한다。▼베를린장벽은 약 2백m사이를 두고 두겹으로 돼있다。그사이에는 탱크방어시설·함정·감시탑등이 들어있다。그러나 지뢰나 자동화기는 없는 것같다는 얘기다。동서독접경에는 지뢰와 자동화기가 둘러쳐져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장벽도 70년대 동서공존무드가 한창이었을때 차츰 빛을 잃기 시작했었다。동서독사이에 장벽넘어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동서독 사이에는 4만회선、동독과 서베를린 사이에도 5만회선의 전화선이 돼있다。78년의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을 합쳐서 동독과의 전화통화는 1천6백만통화가 넘고있다。나들이를 한 사람도 서독에서 3백만이상、서베를린에서 3백만을 넘고있다。동서독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최근 엄청나게 커가고있는 경제교류다。▼인구 56만의 라이프치히에서는 해마다 세계 60여개국이 참가하는 산업박람회가 열리고있다。작년 3월의 경우 박람회 출품상품의 약절반이 동독상품이었다。여기에는 동독수상 호네커도 참석했었다。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서독은 동독최대의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이다。한해동안 왕복무역이 9억달러(80년도)에 이르고있다。동독의 적자를 메우도록 서독은 한해 4억2천5백만달러를 꿔주고있다。▼동서독의 이러한 공존상태는 지난74년 서로 準외교관이랄수 있는 상주대표를 교환한 것으로 굳어진 것이다。작년12월 슈미트수상은 그를 환영하는 동독의 시민들에게 발코니에서 눈덩이를 던져 답례했다고한다。당장 세계대전이 터질것같은 긴장을 강요하면서 강철의 장막을 둘러치고있는 북한의 통치체제와는 비교도 안되는 상황이다。우리의 상주연락대표부 교환제의에 平壤쪽의 반응은 기다려볼 일일까、보나마나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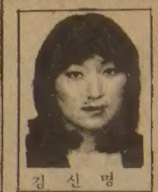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B) 922-3111
R) 791-8196

확장이전 특별 세일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겨울철 특별봉사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1차 왕림하셔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구 진 모

새주소 :
635 BLOOR ST. W.
(전 은하보석상 장소 한국관 앞)
531-2236(B), 886-0722(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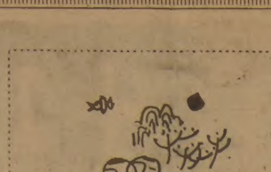
공 고

1982년도 본회의 특별위원및 집행부 임원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이에 공고함.

회 장	장 순 채	고 문	함 병 섭
부 회 장	변 의 섭	자문위원장	이 영 현
총 무	유 지 원	자문위원	박 인 순
기획조사	장 추 신	〃	성 낙 윤
섭 외	원 재 춘	〃	송 의 섭
사 업	김 용 섭	〃	이 인 덕
문화체육	송 관 현	〃	박 주 삼
사회봉사	이 건 영	〃	김 영 규
부녀부장	이 항 련	감 사	최 태 권
부녀차장	이 옥 순	〃	석 창 근
제1구역부장	김 덕 기	소비자보호위원장	강 찬 영
제2구역부장	이 기 항	부동산투자위원장	이 대 환
제3구역부장	이 윤 현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장 장 순 채

아침에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깝다

自己淨化·精神成長으로 기쁨을

楊明文 <詩人·世宗大교수>

엊그제 大寒이 지났나 싶더니 어느새 봄기운이 완연하다. 내일이면 舊正, 터미널과 驛頭에는 歸省人波가 밀리고 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새봄이 돌아오고 있는것이다.

우리들 주변에도 갖가지 새로운 현상, 새로운 변화가 눈에 뜨인다. 그것은 마치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의 물, 두터운 외투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과같이 「거역할수 없는것」이다.

이나라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아갈젊은이들의 대학입시행렬이 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길은 몹시 착잡하다. 무엇이라고 꼬집기는 어려워도, 무엇인가가 잘못된것이 분명하고 보면, 그같은 제도는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것이다. 젊은이들을 젊은이답게 커가도록 돕는일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책무이며, 그것이 교육제도에 관련된일때는 국가의百年之計로서 이사회의 슬기를 한데 모아 대처해야 할것이다.

요즘같이 계절이 바뀌어 봄을 기다릴때는 누구보다도 失鄕民의 심중이 가장 착잡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자신이 실향민이기도 하지만, 두고온山川가 어느때보다 그리워짐을 어쩔수 없음을 느끼는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억지로 떨어져야했던血肉에 대한 아픈 그리움 때문이다.

離散가족에게 있어, 그것도 30여년의 離散생활이 계속되고있는 이즈음이고보면 그 지치고 멍든 가슴을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한것이다. 더구나 統一에대한 실낱같은 기대가 자꾸만 허물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失鄕民의 삶은 지탱할 근거를 송두리째 잃는 결과가 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22일 全斗煥 대통령의 國政연설을통해 표명된 統一방안은 우리들 失鄕의 백성들뿐 아니라 전체국민의 가슴을 설레고 들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그저 한번쯤 스쳐지나가는「말」이 아니라, 全身으로 받아들이지않을수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앞에 다가선것이다.

통일방안이 제시된것은 과거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있었던일이다. 그러나이번만은 실로 「종합적이고체계적이며 구체적」이어서 과거의 어떤 제의와도 다른 획기적인것이다. 우리민족의 통일의지를 한데 묶고 민족화합, 민족자결, 민주, 자유, 평화의 여러원칙들을 토대로 하고있는 이방안은 무엇보다도 끓는 조국애와 민족애를 담고있으며 따라서 어떤 제의보다도 포용력을 갖고있다.

이 방안이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자유·복지를 추구하는 조국통일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사실은, 남북 쌍방합의 아래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統一憲法을 기초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며, 이에따라 총선을 실시하고 통일민주공화국을 만든다는 기본적인 골격이 잘 말해주고있다.

또한 이 역사적인 과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쌍방합의하에 잠정협정이 필요하며 그러기위해 서울과 平壤에 常駐대표부를 설치하자는 놀랄만큼 구체적인 제의가 포함돼있는것이다.

나는 평소에도 통일이란 어디까지나 민족의 화합과 자결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것이지, 어느 특정집단이나 계층의 독점적인 처사로, 또는 무력에의해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었다. 또한 그같은 생각을 한것은 나하나만이 결코 아니었을것이다.

그런데 全대통령의 이번 제의를들으면서 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부어준 슬기와 예지로 이룩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만약 더이상의 대책도 성의도없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분단은 영원히 굳어지고 말것이기때문이다.

이제야말로 한 핏줄, 한 민족인 우리는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야할 때이다.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이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민족의 과업이고 숙원인 통일의 길은 더욱더 멀어질것이다.

생각해보자. 국토분단이 빚은 이땅의 세기적인 비극은 얼마나 처참했던가. 그러고도 이지루하게 계속되는대결은 참으로 얼마나 무의미한 낭비일뿐인가.

우리민족의 悲願은 국토통일이다. 그것은 민족의 至上命令이다. 통일만 되면 그순간부터 6천만 민족의 대행진은 즉각 시작된다.

통일민족의 위대한 새 역사 창조 그것은 몽롱한 꿈의 세계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현실의 세계이다. 휴전선의 두꺼운 장벽을 부수어 무너버리고 녹슨 철조망을 깨끗이 걷어내는 날이하루속히 와야 한다.

그러기위해 우선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인 再會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다각적인 교류를촉진할수있도록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등 모든분야에서 서로협력하며, 이를통하여 민족의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렇게되면 지난30여간 막혔던 친척친지간의 소식을 우선 알게될것이고, 피차간의 생활형편이며 그간의 변모변천에 대한 올바른 판단도 서게될것이다. 이산가족에게 있어서 생사간의 소식이라도 알수있다는것은 얼마나 귀중한 인도적 체험인가. 또한 바르게 판단한다는것은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 얼마나 절실한 지혜이며 목표이겠는가.

나아가 서로를 잘 이해할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하물며 한핏줄 동포에게 있어서이랴.

민족의 간절한소원, 실향민의 애절한 宿願은 바로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은 누가시켜주는것도아니며 他人이 만들어낼수있는 선물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스스로가 해야하는 민족의 사명이고 과업인것이며 특히 우리세대에 주어진 역사의 짐이다.

분단된지 어언38년째. 그동안 우리역사는 험한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다. 汚辱도있었고 榮譽도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커다란 成長이 있었다.

88년의 국제올림픽경기가 우리서울에서 열리게된것은 그동안의 우리들의 성실한 노력과 공헌과 발전이 다소나마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결과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지나치게 우쭐대거나 뽐낸다면 그것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는지 모른다. 우리가 해야할일은 보다 성실하게 우리의 주변을 깨끗이하는 일이다. 自己淨化를 게을리한채, 물질의 성장이 아닌 정신의 성장을게을리한채 제아무리 올림픽을 주최한들 우리에게 남는것은없다.

이번 國政연설에서도 지적됐듯이 「새역사를 펼쳐가는데 있어서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모두 적극참여하는데필요불가결한主人의식」인것이다. 가령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때만해도 우리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있다면 그결과는 오히려 두려운것이된다. 내재된 부패심리의 추방, 인플레이션심리의 추방, 무질서심리의 추방등 3대否定心理의 추방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도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비리가 횡행하는 사회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우리는 너나할것없이 그같은 사회풍조에 오염되있음을 깨닫지못하는 수가많다. 그것은 마치 면역과같아서 썩어도 썩는줄을 모르고 냄새가나도 냄새나는줄을 모르며 심지어는 그자신의 생명이 좀먹고있어도 그것을 모르는것과 같다.

이같은 不感症의 표본이 바로 정치적으로는 부패심리요, 경제적으로는 인플레 심리이며, 사회적으로는 무질서심리인것이다.

여기서 강조돼야할일은 이런 3大否定心理의 「추방」이 말로만 끝나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統一정책이 우리들 全身으로 다가오듯, 우리모두에게 「행동」으로 다가와야한다.

이 否定심리의 추방은 또한 統一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고 초석임을 우리는외면할수없다. 정치를 정치인만이 하는것이아닌것처럼 통일역시 통일전문가만이 하는것은 결코아니다. 두번세번 강조하듯이 통일은 우리민족의 피맺힌 숙원이고 과업이며, 그런뜻에서 통일의 초석인 3大부정심리의 추방도 우리국민모두의 주인의식 아래에서만 가능한 과제인것이다.

어떻든 이번의 國政연설은 우리들 국민 모두에게 벅찬 희망과 함께 더욱 벅찬 과제도 함께 안겨준 셈이 되었다고 느낀다. 가는 길, 가는 방법도 제시 되었다. 다만 어느때보다 더한 힘이 들것이고, 더한층의 슬기가 요구될뿐이다.

제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도 그밑을 흐르는 봄을 얼리지는 못하며, 결국은 그 물의 힘에 의해 녹아 흐르게마련이다. 겨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봄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계절이 바뀌는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統一방안이 제시되는것을 보면서, 우리조국의 봄도 가까이 임박했음을 느끼는것은 나 혼자만의 헛된 생각이 아닐것이다.

"다시는 對이 戰爭안벌여"

무바라크 아랍國들에 紛爭 평화解決촉구

【텔아비브22日UPI=聯】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22일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하고 시리아등 다른 아랍국가들에게도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당부할것이라고 말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이스라엘의 예디오트·아로노트紙와의 회견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이 해결된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전쟁을 하지않을것이며 다른 아랍국가들에게도 전쟁을 벌인후 협상을 시작하는대신처음 협상을 시작하도록 충고할것이라고 말했다.

美대표단 내달訪越

전쟁포로·失踪者문제 討議위해

【워싱턴22日UPI=聯】美대표단이 오는2월경 베트남당국과 월남전당시 실종된2천5백여 美軍의운명을 토의하기 위해 하노이를 방문할계획이라고 美관리들이 21일밤 말했다.

관리들은 美대표단이 하노이를 방문, 전쟁포로와 실종자문제를「집중 토의」할 것이며 그 시기는 아마도 2월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ABC·TV는 美국방성고위관리로 구성된 대표단이 1973년이래 월남전에서 실종된 미군에 대한 극히 중대한 토의를 위해 2월에 하노이를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국방성 대변인은 이보도에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현재 월남전당시 실종된미군은 2천5백여명으로 추산되고있으며 지난74년이래 하노이당국은 총75구의 시체를 미군당국에 인도한바 있다.

"改革노선 復歸하라"

波言論人協, 계엄事態비난 公開狀

당국선"反政人士에 强硬정책계속"警告

【바르샤바22日UPI합=聯】요제프·글렘프大主教를 포함한 폴란드 가톨릭 주교단이 폴란드계엄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가운데 폴란드언론인 협회의 스테판·브라트코브스키회장도 계엄사태를 비난하고 개혁노선 복귀를 촉구하는공개장을 당국에 전달한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또한 연금된 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의부인이 남편이장기간 연금상태에 있는데 항의,「그다니스크검찰에 남편의 귀가를 요구했다고 자유노조 소식통들이 이날 밝혔다.

폴란드 언론인협회가 계엄당국에 의해 불법화된후 지하로 잠적한 브라트 코브스키는 대정부 공개장에서 대중의 지지를 못받고있는 계엄당국이 국민의 1%도 못되는 지도계급을 보호하기위해 폴란드국민을향해 선전포고를 한것이라고 비난했다.

브라트 코브스키는 군부는 계엄령을통해 국민경제와 경제재건의 전망을 말살시켰으며 사회·문화및 정치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고 자유노조가 정권을 장악하려했다는 폴란드당국의 주장은 모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르샤바(폴란드)22日AP=聯】폴란드계엄정권은 내란방지를위해 자유회복을 촉구하는 교회의 호소와 지식인들의 강력한 경고에도불구하고 22일 국가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인사들을 계속 감금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구스와프·스타추라 부내상은 이날 자차에·바르차비紙와의 인터뷰에서 약 4천9백여명의 반정인사가 감금되었고 폴란드각계인사 1만3천2백여명가운데 7백46명이 반정활동포기서명을 거부했다고밝히고 이같이 경고했다.

스타추라 부내상의 이경고는 폴란드당국이 아직도 국민들의 저항가능성이나 자유노조간부들의 조직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통한 소식통들은 1백20여명의 폴란드의저명지식인 작가 배우 영화제작자들이 계엄령을 비난하고 자유노조간부의 체포를 중단하고 비상사태폐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將星등 波고위관리 美에 亡命요청

중요軍事정보 提供

ABC TV보도

【뉴욕23日AP=聯】많은 주요정보를 갖고있는 장성1명을 포함한 폴란드고위관리들이 美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해왔다고 美ABC·TV가 22일 보도했다.

ABC·TV는 이날 월드·뉴스·투나잇프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들 폴란드人 망명요청자들은 『바르샤바조약국들에대한소련과폴란드의 전략, 소련군의 군사상황과 군사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美CIA(중앙정보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TV는 한소식통을 인용,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최근 몇년사이에 입수된 정보중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될만큼 귀중한것들이라고전했다.

이TV는 특히 장성출신의 망명요청자가 내놓은 정보는 美국방성과 국무성의 최고위관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때문에 폴란드사태를 평가하고 대응방안을강구하고 있는 美고위행정관리들이 과연 정확한정보를갖고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連行되는 印파업主動者들 지난19일 벌어진 印度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과 관련, 勞組지도자들이 대량 검거되던당시 럭나우에있는 국영보험회사의 파업주동자들이 경찰에 연행 되어가고 있다. 【럭나우(印度) 22日AP합=聯】

리비아, 폴란드援助

식료·醫藥品등전달

【파리22日AFP=聯】리비아는 5대의 화물수송기에 유아용 밀가루를 비롯 식료품·의약품을 실어 폴란드에 보냈다고 폴란드의 PA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날파리에서수신된PAP 통신은 압델와헤드·곰디바르샤바주재 리비아대표가 리비아는 폴란드에 어떠한 다른 원조도 보낼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레이건 支持率 겨우46%"

닉슨·카터때보다 크게떨어져

就任1周 여론조사

【워싱턴·뉴욕22日UPI AP=聯】레이건 미 대통령취임1주년을 기해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결과 레이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훌륭하게 해내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美국민중 46%에 불과해 카터前 대통령과 닉슨前 대통령의 취임 1주년때의인기보다 크게떨어진것으로드러났다.

이와더불어 레이건 대통령 부처의 백악관생활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46%나 됐으며 집권1년동안에대한 레이건 대통령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워싱턴·포스트紙는 레이건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비난을 가했다.

AP통신과 NBC방송이 전국의 성인 1천5백9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전화조사에따르면 조사대상중 46%가 레이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훌륭한 것이라고답변, 카터前 대통령의 51%, 닉슨前 대통령의 56%보다 크게 뒤졌다.

日·西歐國들도 金利인하 合意

【파리22日AFP=聯】프랑스·서독·영국등 서구제국과 일본은 침체된 경기부양을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다른나라의 경기침체에 주요원인으로 작용해온 美달러貨의 과도한 외환시장 주도를 막기로 했다고 유럽금융업계소식통들이 22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들4개국 재무상과 도널드·리건미국재무장관이 지난주말 파리에서회의를갖고 이같은 협약에 도달했다면서 美통화정책의 강력한 대외영향력을 축소시키는데 실패한 이들 국가는 독자적인 금리인하와 달러貨편중통쇄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것 같다고 설명했다.

EEC失業率 戰後최고

작년말 평균9%

【브뤼셀22日AP=聯】작년12월말현재 歐共市(EEC)국가들의 실업률은 평균9%로 전후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EEC통계국이 22일 발표했다.

EEC통계국은 이날 공개한 통계에서 작년12월말현재 EEC10개국의 전체실업자수는 1천만명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숫자는 81년초에 비해 무려 2백만명이상이 늘어난것이라고 말하고 실업이 가장 심하게 가중되고 있는 나라는 서독으로 실업률이 작년11월의 5.7%에서 12월에는 6.5%로 상승, 2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敎皇 西阿4國순방

來12일부터 8일간

【바티칸시티22日AFP=聯】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작년5월의 피격사건이후 최초의 해외나들이로 오는 2월12일부터 19일까지 西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베닌·가봉·赤道기니등 4국을 방문한다고 교황청이 22일 발표했다.

◇디스코에 心醉한 美망명蘇발레스타 지난79년 蘇聯에서 西方으로 망명한 발레스타 알렉산더·고두노프(35)가 최근 美國영주권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위한 파티에서 여자친구와 디스코를추고있다. 고두노프는 망명하기전 소련의 볼쇼이발레단의 솔로이스트였다. 【뉴욕22日UPI합=聯】

外信안테나

◆프레이前칠레大統領 사망 =에두아르도·프레이前칠레대통령이 지난해11월의 담장수술로인한 병발증으로 22일 사망했다. 향년71세. 프레이씨는 지난64~70년까지 6년동안 재임하면서 농업개혁을 단행하고 만성적인플레 해소에 진력한외에 6개국 경제공동체인 안데스기구를 결성하는데도기여했다. 【산티아고(칠레)=AP】

◆葡, 蘇대사관원2명追放 =포르투갈정부는 리스본주재 소련대사관직원 2명에추방령을 내렸다고 포르투갈의 ANOP통신이 외무성의 공식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리스본=AFP】

◆「連帶의날」宣布 적극呼應=사꾸라우찌(櫻內)일본외상은 22일 오는30일을 『솔리대리티(연대)의날』로 선포, 폴란드사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확인하자는 미국의제의에 『호의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東京=共同】

海外토픽

강간범은 去勢하라

★英國人들 미온처벌비난

강간범에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거세라고 많은 영국인들이 주장하고있다.

최근 영국의 대중지 「선」이 강간문제에관해 성인8백명을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여성의 30%와 남성의20%가 최근 강간법에대한 영국법원의 미온적인 판결을비난하면서 강간범의 거세를 지지했다는것.

그러나 73%의응답자는 징역형이 최선이라고답했으며 벌금형을 지지한사람은 극소수였다.

이 여론조사는 최근 영국에서 한소녀를 강간한 사나이에게 벌금형이부과되고 한 젊은 부인을 윤간한 세 소년에게 무죄판결이내려진후 실시됐다. 【런던=AP】

惡性임질 急速만연

★美등 최소한 45國서發見

페니실린으로 치료불가능한 『초악성 임질』이 미국과 전세계에서 급속도로 만연되고 있다고 미국방역센터가 보고했다.

미국의 경우 81년 첫 11개월중 2천4백28건의 악성임질이 보고되었는데 이같은숫자는 이병이 76년 처음 발견된이래 4년간 발생한 전체숫자 1천9백71건보다도 훨씬 많은것.

방역센터측은 또 이병이 최소한 45개국에서 발견되는등 전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틀랜타=UPI】

對달러換率 急騰勢

상승폭 1%線넘어

對美달러환율이 연초부터 급등세를 나타내 올들어 상승폭이 1%선을 넘어섰다.

23일 한국은행은 美달러貨의 집중기준율을 전날보다 40전이오른 7백7원80전으로 고시, 작년말의 7백원50전에 비해 7원30전올라 올들어 상승률이 1%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이날 외국환은행의 對고객매도율은 전신환이 7백10원, 현찰이 7백18원42전으로 올랐으며 매입률은 전신환이 7백5원60전, 현찰이 6백97원18전으로 각각올랐다.

메아리

언어의 壁

한미수교1세기를 맞는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이 실시된지 1백년이되는 해이기도 하다.

작년에 가열된 會話熱과 영어교육의 반성론은 영어학습에 대한 새로운 轉機를 열것 같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어에 대한 관심은 더 절실하게 되었다.

근대에 와서 우리 문호를 세차게 두드린 서양세와의 교섭을 위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때 가장 많이 몰린것은 영어였다. 19세기말에 세워진 외국어학교의 수료자도 영어전공이 가장 많았다. 이때부터 영어는 우리의 관심권을 벗어난일이 없다.

언어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동양문화권에서 서양어를 완전히 익힌다는것은 여간한 고통이 아닙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중공은 근대화계획을 추진하려 미국에 6천여명의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한다.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현지에서 겪는 「제1의 애로」가 두터운 언어장벽이다. 2명의 학자는 유학생활에 적응 못해 자살까지 했다. 「말이 안통하는 유학」의 비극이다.

동경올림픽 2년전 일본에선 「영어에 강해지는 책」이 나와 전후 최고의 베스트 셀러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고속성장이 시작되면서 외국어열이 높아가 이책의 출간은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다. 평균 1분간에 8책꼴이 나가 80만~90만부가 팔리는 「슈퍼 셀러」가 되었다.

이책의 妙味는 중학교 1~2년 정도의 영어실력으로도 언어의 구사능력과 사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표현이 가능하다는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일본에 있던 외국인 영문학교수는 오히려「영어에 약해지는 책」이라고 혹평했다. 외국어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려준 흥미있는 에피소드였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렸던 영어교육1백년 세미나에서 주목할 지적이 나왔다. 중·고교의 영어교육은 듣기, 말하기보다 읽기 쓰기에 역점을 두는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다.

듣고 말하는데 열중하여 문법을 소홀히 하면 실력이 더 뻗어 나갈수 없다는 지적은 들어 볼만하다.

확실한 기초가 없는 외국어란 모래성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영어교육의 반성은 즉흥적이기보다 체계적으로, 지름길보다 탄탄한 正道를 찾는데서 출발해야겠다.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천엽
* 뱅쿠엘 써비스

OPEN HOUR
월~목 11:30~11:00 P.M
금 11:30~2:00 A.M
토 1:00P.M~2:00A.M
일 1:00P.M~10: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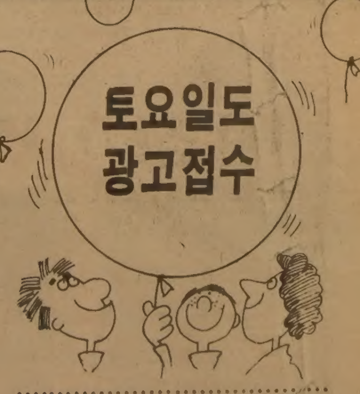
주소: 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시티)
전화: 977-3452

성균관대학교정기총회

새해및 구정을 맞이하여 늦게나마 동창제위께 인사를 올립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어왔던 성균모임을 아래와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부함께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일 시: 2월13일(토)오후6시
장 소: 클링톤하우스 2층(BLOOR ST. W.)
회 비: $20
연락처: 김영창(884-0284), 김춘탁(534-1085), 이인덕(535-7772)

성균관대학교동창회장: 김영태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 533-2361~4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한국일보광고부

大入制度 개선補完작업

文敎部 前期大에나타난 문제점등 資料수집 착수

「先지원 後시험」制 轉換검토
投機입학·未達사태등 重視

문교부는 23일 현행입시제도를 개선보완한다는 전제아래, 이번 전기대학입시에서 나타난 문젯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자료수집작업에 착수했다. 문교부는 이번입시과정에서 나타난 최대의 문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난해 입시때와 똑같은 투기입학、미달사태로 요약된다고보고 올해 입시제도의 개선방향역시 이두가지 문제해결에 집중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 문교부의 한관계자는 이두가지 양상이 서로별개의 사태가아니라 다같이 「先시험 後지원」의 현행입시구조하에서 빚어지는 피할 수 없는 사태라고 지적, 이 구조를 「先지원 後시험」으로 도치시키는데 개선방향의 중점이 주어질것이라고 말했다.

鄭泰秀문교차관은 이날『올 입시의 경험을 최대한 살리면서 빠른시일내에 보다나은 개선책을 찾을수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鄭차관은 그러나『입시제도에서 항상완벽한제도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이번입시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노출했으나 지난해의 입시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양상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입시가 성공이냐 실패냐 잘라말하는것은무의미하며 올해일어난 문제들은 새대입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혼란이라고 말했다.

그는『새대입제도를 보완 적용 3년째가되는 내년입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수있을정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교부는 22일 하오 이번입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전기면접시험결과 전국 평균응시율이 고른분포를 보이고있다고 평가하고 일부대학에서 일어난 정원 미달사태도 예상보다는 훨씬 그 폭이 적은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문교부는 결시율이 29%에 그친사실에대해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소신에 따라 1개대학에만 단수지원한결과로 분석, 상당수 수험생들이 눈치싸움에 휩쓸리지않고 소신대로 지원한 고무적인결과라고 평가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긍정적인 몇가지 현상을 기초로 현행제도가 정착될수 있다고 확신하고있으며 개선의 범위는 「학력고사+내신성적」이라는 새 입시제도의 근간을 건드림이없이 다만 「先시험 後지원」의 조치, 전후기등 대학의 전형기일 재조정등만에 그쳐야 할것으로 믿고있다.

문교부 관계자들은 또 최근 대학입시개선론이 고개를 들면서 일부정당에서 고교평준화정책까지 문제를삼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前期大 합격자 발표 25일 이후에나 可能
査定작업 늦어져

전기대학들은 합격자발표를 서두르고있으나 미달로인한 2、3지망자 충원문제와 수학능력부적격자에 대한 관정기준을 정하는등 사정작업이 늦어져 오는25일 이후에나 합격자발표를 실시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서울大 합격자발표는 빨라도 26일께나 가능할것으로보이며 高麗大、西江大、淑明女大등은 27일로예정하고있다.

서울大관계자는 23일『수험생들이 입학원서제출때 작성한 컴퓨터용 OMR카드에 많은 잘못이 발견돼 직원들이 재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일을 그이상 앞당길수없다』고 말했다.

한편 2차전형은 예정대로는 2월2일에 실시되고 합격자는 2월6일 발표되며 추가모집 원서교부및 접수는 8~10일, 전형은 12일에 실시된다. 각대학의 합격자발표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25일＝建國大(하오2시)가톨릭대(하오5시)한국체육대(상오10시)서울산업대(상오10시)
▲26일＝서울大(시간미정)慶熙大(상오10시)東國大、中央大、外國語大(하오2시)漢陽大(미정)
▲27일＝高麗大、延世大、淑大、西江大(상오10시)檀國大、國民大(하오2시)弘益大、誠信女大(미정)
▲28일＝梨花女大、崇田大、감리교神大、國際大(미정)

日、한국어講座보류

【東京22日＝聯】일본NHK방송은 오는 4월의 프로개편때에도 한국어 강좌방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NHK의 다나까(田中)방송총국장은 22일『방송의 명칭을 둘러싸고 남북한간의주장에 일치점이 발견되지않아 좀더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反政府 유인물배포 淑大生2명에 實刑

서울형사지법 尹汝憲판사는 23일 유인물을뿌리며 학생시위를 선동한 淑明여대정외과3년 朴貞珍피고인(21)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淑大경제과4년 金環順피고인(24)에게도같은 죄를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다.

조카 兄弟구하려다 三寸마저 溺死

【釜山＝聯】22일하오7시30분께 경남金海郡長有面水佳里 가동부락앞 조만포강에서 얼음을 지치고 놀던 金炳철군(11·金海郡鳳洛面竹林里 해포국교5년)과 동생 병화군(9) 등 형제가 얼음이깨져 물에빠져 허우적거리는것을 삼촌 金구채씨(32)가 구하려 들어갔다가 3명 모두 익사했다.

金씨는이날 사고현장서 1백m떨어진 밭에서 일을하고 있다가 갑자기 얼음이 꺼지는 것을 보고 달려가 노끈을 던져 물에 빠진 아이들을 얼음위로 끌어올렸으나 金씨가 서있던 곳의 얼음이 다시 꺼지는 바람에 함께 숨졌다.

모방脅迫 석달새 10여件
금복주事件이후 "家族 몰살"돈要求
거의 원한없이…3件미해결

大邱 금복주 사장집 폭파협박사건을 흉내내는 협박사건이 잦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복주사장 협박사건이후 전국에서는 같은유형의 협박사건이 모두 10여건이나 발생했는데 이중 3건은 23일현재까지 미해결이다.

이같은 모방협박사건의 공통점은 뚜렷한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가족몰살』등 끔찍한내용의 협박전화 또는 편지로 금품을 요구하는것.

협박범들은 거의가 어설픈 흉내를 내다가 붙잡히는것이 상례지만 검거되기까지 협박을받은 가족들을 불안에떨게하고 경찰수사력을 낭비시키는것이문제다.

이같은사건중 검거된 협박사건은 서울 馬泰河피부비뇨기과원장 협박사건과 高麗병원 협박등인데 大邱中區東門洞 화신상업주식회사 사장 감모씨집(1월8일)과 大邱東區新川3洞 김경수외과원장(49)집(1월8일)협박전화사건, 大邱市中區東仁洞4街 東仁외과 유진호씨(50)집 협박사건등은 해결이 되지않고있다.

23일 서울麻浦경찰서에 구속된 河모군(16·정비공·서울麻浦區倉前洞)사건이 이모방협박의 대표적인예로 河군은 지난13일 朴古金씨(45·서울麻浦구청방위계장·서울麻浦區孔德洞247의23)에게『현금 5백만원을 내놓지않으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경찰에 알릴생각은 말라。만약 지시를 어기면 벌집을 내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는등 지난20일까지 4차례에걸쳐 협박했었다는것.

河군은 지난20일 『22일 자정까지 서울麻浦區倉前洞弘益공전옆 골목길에서있는 봉고트럭 적재함에 현금5백만원을 갖다 놓으라』고 4번째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백지를 잘라 만든 가짜 현금뭉치를 진짜돈인줄알고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河군은 경찰에서『가족을부양할길이없어 금복주사장집 협박사건을 모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河군에의한 협박사건이 발생하자 朴씨가족들은10여일간이나 외출도못한채 불안에 떨었으며 경찰은 형사 1개반7명으로 전담반까지 편성, 1주일동안 朴씨집주변에서 철야잠복근무를했었다.

"직매점계약금 돌려달라" 商人 50여명 抗議

23일상오9시께 서울中區新堂洞217의39 제일평화시장 3층 海東수산(대표 李德松·41)에 직매점계약을 맺은 상인 50여명이 몰려가 계약금을 돌려줄것을요구했다.

이들에 의하면 海東수산은 지난해10월부터 서울 安養등지의 영세상인 1백77명과 오징어등 수산물직판계약을 맺었는데 물건을 제때에 대주지 않거나 변질된 것이 많아 해약하기위해 찾아가보니 이미 1주일전 점포보증금을 빼내 달아나 버렸다는것.

피해자 金壽烈씨(34·서울中區筆洞2街92)의 경우 지난해11월5일 계약금 5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가 그뒤 변질된 물건이 많아 해약하려했으나 회사측은『1년 기한이기때문에 안된다』고 말했다는것인데, 海東수산과 계약을 맺은 상인들의 계약금만도 모두 1억원이되는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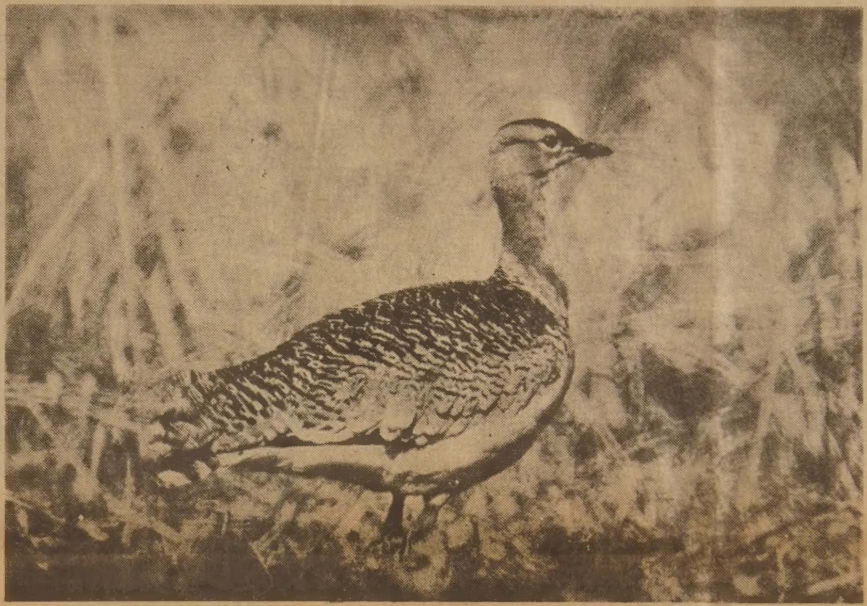
舊正대목 市場에 불
廣州新長 47개점포·쌍인 상품全燒

23일 상오2시께 경기廣州郡東部面新長里 新長시장에서 불이나 47개점포(4백50평)와 구정대목을노려 쌓아둔 점포내부의 상품등을 모두 태우고 1시간만에 진화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원인과 피해액을 조사중이다.

안동상회 권총강도 20代犯人 잡아

【釜山＝聯】속보＝釜山안동상회 권총강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3일 새벽0시20분께 하숙집다락방에 숨어있던 범인 尹우용(22·慶北迎日郡)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인이 東萊區巨堤洞751의6 安炳玉씨(35)가 경영하는 하숙집 다락방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安씨로부터 받아 이날새벽 완전무장한 5명의 경찰이 다락방에서 잠자는 尹을 덮쳐 검거한것.



◇20년만에 洛東江하구 철새 도래지에 나타난 느시。釜山北區鳴旨洞平城里 무우밭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느시」 1마리가 1천㎜ 망원렌즈에 잡혔다。

철새 "느시"가 다시 나타났다
자취감춘지 20년만에 洛東江河口에
調査團구성

멸종된것으로 알려졌던 들칠면조(천연기념물206호)가 20년만에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에 나타난것이 발견됐다.

들칠면조는 「느시」 또는 「너화」등의 정다운우리말로 불리어졌던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철새. 1940년대의 사냥꾼들이나 농촌지방 사람들은 초겨울이면 마을을 하늘높이 날아 들판에 내려앉아 무리지어날아들던 이 느시들의 집단원무를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이 느시는 몸집이 어미 칠면조 만큼이나 큰 대형조류로 동작은 한없이 둔해서 사냥꾼들의 안성마춤 표적이 되어왔고 고기가 연하고 감미로와 남획이 계속되어 왔다. 느시는 매년 초겨울 몽고지방으로부터 한반도로 날아와 겨울을 지내고 돌아가는데, 지난 60년대초 이후는 때가되어도 나타나지않아 멸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22일 낙동강하구에서 본사 망원카메라에 포착된 느시는 군서의 무리에서 이탈한 외톨박이의 모습이었으나 조류학자 元炳旿박사는『사라졌던 느시가 분명하다』고확인, 흥분을감추지못했다.

느시는 큰 체구와 둔한 몸집 때문에 환경부적응현상을 보여 전세계적으로 멸종되어가는 추세에있다고 元박사는 밝혔다. 한편 국제 자연보존연맹에서는 이 멸종위기에 처한 느시의 서식상태를 조사하기위해 최근 「느시전문가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낙동강하구＝金海雲기자촬영〕

"北韓은 1·22제의 受諾하라"
金洛植적십자總裁

金洛植대한적십자사총재는 23일 全斗煥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등 새로운 평화통일방안 제의와 관련, 『민족자결·자주원칙에 입각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리의 제의를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金총재는 이날 상오 韓赤총재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북한측의 긍정적인 응답을 촉구하고 『남북적십자회의와 병행하거나 또는 별개로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해 북한당국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줄것』을 거듭 강조했다.

金총재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71년8월1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처음제의해 남북간에 처음대화의통로를 연 사실과 지난해8월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재개를 거듭 촉구하는등 가장절실한 문제인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위해 노력해왔음을 상기시키고 『북한당국이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재개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회담에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세이셸群島서 나포 한국漁船 둘 釋放

【빅토리아(세이셸군도)22日AP＝聯】지난 6일과 10일 인도양상의 세이셸군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불법어로혐의로 각각 나포됐던 행복51호와 대왕16호등 2척의 한국어선이 22일 세이셸정부에 의해 석방됐다.

함백炭鑛 갱도붕괴 1명壓死 5명救助

【春川＝聯】22일하오2시40분께 강원도 旌善郡新東邑芳垈1里 함백광업소 자미합갱내 지하3천m 지점에서 갱도를 받치고있는 갱목보수작업을 하던 池주환씨(36·旌善郡新東邑鳥洞6里)가 갑자기 갱도천장이 무너져내리는 바람에 탄더미에 깔려 그자리서숨지고 갱안 막장에서 탄을 캐고있던 정연택씨(46)등 5명은 매몰 하룻만인 23일 하오2시20분께 모두 구출됐다.

이날 숨진池씨는 갱천장을 받치고있는 갱목을 보수작업하던중 직경1m가량의 무연탄더미가 무너져 내려 그자리서 깔려 숨지고 사고지점에서 지하40m 떨어진 막장에서 일하던 정씨등 5명은 무너진 탄더미에 갱도가막혀 갇혔었는데 고광언씨(38)는 23일상오6시께 먼저구출됐다. 구조된 광부들은 현재 광업소부속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教育제도 심의協 국민당 構成제의

국민당은 현행 대학입시제도개선등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위해 교육관계자、언론인、학계인사、정당대표등 관계요로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교육제도 심의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국민당의 교육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金永光의원)는 23일『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國家之事인 교육문제를 문교당국과 특정정당에만 더이상 전담시킬수없는 중차대한시점에 이르렀음을 통감하고 이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졸속으로 결정한 기계적이며 관료주의적인 문교정책에서 비롯된것으로서 이제 방치할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교육제도심의협의회를 구성、대학입시제도및 高校평준화시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수업년수의 조정과 교과과정의 재편성등 學制에 대한 연구、週5일수업제의 검토등 현안교육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구、심의할것을 촉구했다.

"舊正"여전
驛마다 歸省人波

구정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올해도여전했다.

구정을 이틀앞둔 24일 낮부터 서울역에는 때때옷과 한복차림에 선물꾸러미를 손에든 귀성인파가 몰리기시작, 이날 하룻동안 7만여명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서울역당국은 23~27일의 「귀성객특별수송기간」동안 지난해와 비슷한 27만여명이 서울역을 이용할것으로 보고 19개 임시열차를 마련하는등 모두 1백6개 열차로 귀성객을 수송할 계획인데 23일과 24일에 구정귀성인파는 피크를 이룰것으로 보인다.

江南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신정때보다 30%가량 늘어난 7만여명의 귀성객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경부선은 평일보다 20회를 늘려 1천회를 운행, 4만3천여명을 실어날랐는데 지난12일부터 18일까지 예매를 마쳐 25일분까지의 차표가 모두 팔렸다.

高速버스、트럭追突 22명 重輕傷

【釜山＝聯】22일밤9시45분께 釜山市東萊區久瑞洞 京釜고속도로 釜山톨게이트 1㎞지점에서 서울발 부산행 한진고속버스 경기6바2030호(운전사 李종기·42)가 화물을싣고 앞서가던 경기7아2909호8톤트럭(운전사 金진호·34)과 추돌, 버스운전사 李씨등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버스운전사 李씨、안내양 李정숙양(24)등 10명이 東萊區溫泉洞 녹십자병원과 釜山市釜山鎭區釜田2洞168의1 병원에 입원, 응급가료중이나 李씨、안내양 李양등은 중태이다.

이날 사고는 앞서가던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 뒤따라가던 버스가 미처피하지 못하고 트럭 뒷부분을 받아 일어났다.

신종「海外여행 保險」시판
傷害·死亡등 現地서 보험금

재무부는 해외여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 해외여행자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해외여행 보험」을 개발, 23일부터 시판토록 허용했다.

이 보험은 여행의 목적·지역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수 있으며 보험금은 현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적용범위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에 질병, 휴대품 배상책임, 특별비용 전쟁위험 등에관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수있도록 돼있으며 보상한도는 3천만원으로돼있고 여행자가 여행을떠나기전에 가입보험료를 1회만 납입하면 된다.

해외보험이 보상해주는 경우는 ▲해외여행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받거나 사망한때 ▲여행할때 해외여행중 병에걸려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때 ▲여행할때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외국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입혀 손해배상을 해주게됐을때 ▲조난을당해 수색、구조작업을하거나 국내에서 구조자를 현지로보낼때드는 교통비나 숙박비등 특별비용 ▲전쟁지역에 여행중입은 상해등이다.

예를들어 사업차 한달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2만7천35원의 보험료를내면 사고로다쳐 치료를 받을경우 3백만원의 치료비를 보상하고 사망하면 3천만원을 보상해주며 여행가방을 도난당했을때는 3백만원, 쇼핑중귀한상품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을할경우는 1천만원을 보상해주는등 폭넓은 혜택을받도록 돼있다.

한국일보

쌍방울 메리야스 ®

⊙속내의 대량입하 했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각종 메리야스(남녀 팬티, 런닝샤쓰등)

주소 :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송 의 섭

평생모은 億臺땅 學校에 희사

原州 李洋南 억척할머니 堤川여자商高 新設敷地로

30년간 안쓰고 덜먹으며 갖은 고생을 해모은 싯가1억4천여만원의 땅5천평을 학교신설부지로 선뜻 희사한 할머니가있어 화제가되고있다. 「구두쇠」「억척할머니」로 불려온 강원原州市台庄1洞734의9李洋南할머니(78)는 22일 堤川교육청에찾아와 朴東起교육장에게 堤川여자상업고등학교 시설부지로 자신이 평생동안 마련한 堤川市新面洞182등 9필지 싯가 1억4천만원상당의 땅 5천평을 희사했다.

콩나물장사·과일行商 30년간 버스값아낀 억척할머니 유명

李洋南할머니가 이같이 거액의 땅을 국가교육사업에 희사하게 된것은 堤川교육청이 올해 여자상업고등학교신설계획에 따라 부지를 물색중 현재의 李할머니가 소유하고있는 땅이 적지로 선정됐기때문이다.

朴東起교육장은 지난 초순께 李할머니를 찾아가 땅을 학교부지로 팔수 없겠느냐고 의논을 하자 李할머니는 기다렸다는듯이 선뜻 자신의 땅을 국가교육사업에 기꺼이 희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2일상오10시30분께 堤川교육청에 들러 충북도교육위원회앞으로 증여증서에 서명날인을 끝낸것.

충북堤川市花山洞이 고향인 李할머니는 18세이로 15년전에 故人이된 金용채씨와 결혼, 시집인 原城郡文幕面에서 살아오면서 이번에희사한 재산을 마련하기까지 30년간을 콩나물장사와 사과광주리장사로 행상을해왔으며 「안쓰고 덜먹고」 개미같이 열심히 살아온 억척할머니로 이지방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다.

『할머니는 오늘이 있기까지 30년간을 原城郡文幕面에서 原州시내까지 콩나물과 사과장사등 행상을하면서 버스값이 아까와 왕복32㎞의길을 단한번도 버스를 타지않고 걸어다녔다』고 李할머니의 유일한 조카인 原州市明倫洞 감리교회 李상호목사(35)는 말하고있다.

李할머니는 슬하에 형제를 두고있었으나 6·25동란때군에 입대했던 장남 金정수씨(당시25세)가 중부전선전투에서 전사를했고 둘째아들 정순씨(당시23세)마저 강원三陟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전투에 참가, 전사를해두 아들을 국가에 바쳤고 지난67년에는 남편까지 잃어 71년6월25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광복장까지 받았다.

한편 堤川교육청은 올안으로 24학급의 堤川여자상업고등학교를 준공하고 학교내에 李洋南할머니의 송덕비를 세워 이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李할머니의 높은뜻을 영원히 기리기로했다. 【堤川=聯合】

프로美式축구 슈퍼볼 25일 폰티악서 開幕

프로미식축구 81~82년시즌을 마무리하는 제16회 슈퍼볼이 25일상오6시(한국시간) 미시간州 폰티악 실버돔에서 벌어진다.

이번 슈퍼볼서 자웅을 가릴 샌프란시스코·포티나이너즈(NFC챔피언)와 신시내티·벵갈스(AFC챔피언)는 과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데다 팀컬러가 대조를이루어 어느때보다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슈퍼볼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이들 양팀은 샌프란시스코가 젊고 패기가 앞서는데 비해, 신시내티는 노련함을 주무기로하는것이 특징이다. 이번 경기가 벌어질 폰티악은 인구7만6천명의 조그만 도시로 8만관중을 수용할수 있는 실버돔이란 실내경기장을 갖고있다.

이번 슈퍼볼은 駐韓·美軍방송인 AFKN서 25일상오5시30분부터 위성중계될 예정이며 또한 국내의 KBS는 제2TV를통해25일하오5시30분부터 녹화방영한다.

야구元老 鄭斗永씨

대한야구협회의 국제이사 겸 심판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야구인 鄭斗永씨가 22일상오 漢城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51세. 故鄭斗永씨는 지난해 5월17일 교통사고로 의식을잃은후 2백50일간 투병해왔다. 鄭씨는 51년 大田高를 졸업하고 鐵道局에 입사, 이후 陸軍과 鐵道局, 弘益會등에서 야구선수와 감독으로 활약했으며 67년부터 야구협회 이사로 일해왔다. 발인은 24일상오 9시, 장지는 龍仁공원묘지.

安海淑·黃男淑 종횡무진 英國꺾고 團體戰서 우승

——西獨 오픈卓球서 8년만에

한국여자탁구대표팀은 中共이 불참한 제30회 西獨오픈탁구대회여자단체전 결승에서 英國을 3-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고 선수단이 23일 협회로 알려왔다.

23일새벽 킬의 오스트지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단체결승전서 한국은 安海淑·黃男淑의 활약으로 英國에 낙승, 74년우승이후 8년만에 다시 패권을 차지했다.

남자팀은 朴利熙의 부상으로 준결승전에서 유고에 3-2로 역전패, 3위에 그쳤다.

한국의 盧潤寬, 金琓, 金琉璃과 白良美, 安海淑, 黃男淑, 辛庚淑, 梁英子등 8명은 남녀개인단식 2회전에 출전한다.

◇제2일전적
▲여자단체결승
한국 3-1 영국
金貞美 0-2 하머슬리
安海淑 2-0 위트
黃男淑 2-0 하머슬리
安海淑 2-0 하머슬리
▲남자단체결승
유고 3-2 일본
▲동3위결승
유고 3-2 한국
일본 3-2 스웨덴

朴利熙다쳐 出戰못해 男子는 유고에 밀려 3위

마라톤후원 特別委 專門醫로 구성

한국마라톤후원회는 마라톤훈련의 과학화를 위해 전문의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 선수선발및 육성등에 과학화를 기하기로했다.

후원회는 또한 우수선수를 계층별로 집중 지도키위해 대학생과 고교생, 여자마라토너등 3원화 체제로분리, 5천m, 1만m, 10㎞및 20㎞도로등에 따라 기준기록을 설정하여 기준기록을 돌파한 우수단체와 우수선수에 각각 훈련비로 1개월에 15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單式 2차전도 승리 데죠 對比예선 金春浩 3대1로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은 23일 속개된 데이비스컵테니스 동부지역 준준결승 필리핀과의 경기 2차단식서도 승리, 2-0의 리드를 잡았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첫세트서만 게임·스코어 10-10까지 혈전으로 벌였던 金春浩는 필리핀의 팔라메다를 12-10, 4-6, 6-3, 6-1로 제압, 승기를 잡아 주었다. 승부를 가리게될 복식서는 한국의 金英大·宋東煜조와 필리핀의 가브리엘·마살조가 대결한다. 한국은 필리핀에 이길경우 3월1일부터 7일사이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 전승자와 준결승전을 벌이게된다.

핸드볼選手團 어제 壯途출발

제2회 쿠웨이트 국제핸드볼대회(25일~2월1일·쿠웨이트)에 출전할 韓國선수단 16명(임원3·선수13)이 23일 하오8시 KAL기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제1회대회에 참가했던 北韓이 출전을 포기, 예상되던 핸드볼 남북대결이 무산됐는데 韓國을비롯, 中共 바레인 스웨덴 中東지역선발팀 쿠웨이트등 6개팀이 패권을 다투게됐다.

◇선수단명단
▲단장=尹世榮(서울시연맹회장) ▲감독=柳在忠(高麗高교사) ▲코치=車聖福(成均館大코치) ▲선수=林英喆 姜泰求 林明吉(이상圓光大) 李相孝 吳世烈 崔末定(이상釜山大) 朴秉洪 沈禎萬(이상成均館大) 李鎬赫(忠南大) 鄭容昊(慶北大) 姜德壽(全北大) 成永俊(朝鮮大) 安晋株(金堤農)

7m線 밖의 슛은 3點 國際籠聯 새규칙만들기로

【로마22日AP=聯合】국제농구연맹(FIBA)은 22일 로마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농구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8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FIBA총회서 확정한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부터 시행키로했다.

FIBA의 개정룰은 엔드라인으로부터 7m거리에 라인을 긋고, 이 라인밖에서 슛을 성공시키면 보너스1점을 가해 3점, 바스킷 위로 리바운드된 볼에 대해 탭·슛(손으로 가볍게 쳐서 넣는것)을 금지하고, 곰밀제한 지역을 현재의 타원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國際 스포츠用具展 올림픽誘致館 병설

체육진흥재단은 오는 6월22일부터 27일까지 永東소재 韓國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하는 제1회국제스포츠용구 및 레저용품전시회때 작년9월 西獨 바덴바덴에서 전시했던 88년 서울올림픽유치관을 함께 설치키로했다.

진흥재단은 이에따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4천평의 전시장가운데 1백50평을 올림픽전시관으로하여 바덴바덴때의 서울올림픽개최경기장 시설모형을 비롯한 고적등 문화관계사진을 짜임새있게 설치, 88년 서울올림픽을 적극 PR하기로 했다.

李扶風씨 어제別世 가거라38선등 작사

「애수의 소야곡」「가거라38선」의 작사자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의원인 李扶風씨(본명 朴鶴洪)가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李씨는 작사가·극작가로 활동, 「애수의 소야곡」「알뜰한 당신」「해조곡」「가거라38선」「외로운가로등」등을 작사했으며 극작으로「남매」「백설공주」등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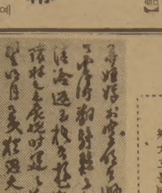
◇故 李扶風씨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文豪의 名言

李奎報 <1168~1241>

高麗의 文臣 文人, 字는春卿 號는白雲居士, 戶部郞中允綏의아들。절출한 詩藻로 호방 활달한 詩風이 당대를 풍미했다。「東國李相國集」「白雲小說」「天馬山詩」등。



◇李奎報의 필적

天地로 금침삼고 江河로 酒池이뤄

세상에 전하는 네가지 快한 時란 가뭄에 단비를 만나는것, 타향에서 친구를만났을때 洞房에 화촉을밝히는밤, 金榜에 이름이 걸릴때이다. 그러나 가뭄에 비를 만났다해도 비 뒤에 또 가뭄, 타향에서 친구를 만난다해도 다시 또 작별을 해야한다. 동방화촉이 어찌 생이별 안할것을 보증하며 金榜에 걸린 이름이 어찌후환의 시작이 아닌것을 알겠는가.

이것이 마음에 틀리는것이 많고 마음에 快한것이 적은 것이니 탄식할 뿐이로다.

× × ×

麗朝의大文豪 李奎報는 술 詩 거문고를 좋아하여 스스로 「三酷好先生」이라 불렀다.

본명 奎報는 그가 司馬試에 응할때 奎星이 異瑞를 알렸다해서 지은 이름이다. (어려선 兒名이란것이 따로있음)

23세(1190)에 文科에 급제했으나 10년가까이 보직이안돼 이기간에 한가히 「白雲居士錄」과 「古律詩」「東明王」등을 지었다. 神宗2년(1199) 비로소 全州牧使겸 掌書記로 임명된후 1237년 70세에 門下侍郞平章事를 끝으로 관계서 물러날때까지 그는 「벼슬하나에 詩한首, 詩한首에 벼슬하나」이런식으로 벼슬이 오를때마다 그 감상을 읊은 即興詩로 유명하다.

처음엔 陶淵明의 영향을 받았으나 개성을살려 독자적 詩格을 이루었고 몽고군의 侵入을 「陳情表」로서 격퇴한 名文章家였다.

그의詩文을모은 「東國李相國集」53권과 洪萬宗의 「詩話叢林」에 수록된 그의 「詩話集」「白雲小說」은 최종헌의 아들 崔怡를비롯한 친구들과 후손들이 편찬한것이다.

「인생에 세상일 또한 가지런치 못하니 움직이면 곧 마음에 틀리고 마땅치 않더라. 젊어서는 집이 가난하여 아내가 오히려 업신여기더니 늙어서는 녹이 후하여 기생이 장차 좇을수 있도다.

장마비는 내가 노는날에 많고 갠날은 모두 내가 한가히 않았을때 일더라. 배불러 밥을 그친즉 맛있는 고기가 많고, 목구멍이 아파 마시는걸 꺼리는데 많은 술잔을 만나더라.

깊이 넣어둔 보배를 천하에 팔려니 시장값이 오르고 오래된 병이 바야흐로 나았는데 이웃에 의원이 있더라.

무릇 모든일이 마음에 틀리는것이 대개 이러하거늘, 적게 말해 한몸의 榮枯苦樂이나, 크게는 집안과 나라의 안위치란이 마음에 틀리지 않은것이 없느니라」

「天地로 금침삼고 江河로 술못 이뤄 千日토록 마시면서 太平시를 취하여 지내고저」 인용은 「白雲小說」중에서.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오늘 수학을 잡쳤어요" "문제가 뭔데?"

"제가 1백만달러에대해 10년동안 연12%의 이자를 받는다면 얼마를 탈것이죠?"

"그래 얼마를 탈것이라고 그랬니?"

"학교를 계속다닐 이유가 전혀 없게되는 거지요 뭐"

구독신청은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流星의 賦 <291>

風雅와 策謀 ㉒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이로써도 수길의 자상한 성격을 알수가 있다. 수길은 히데쓰구가 자기의 장점은 닮지않고, 자기의 호색벽(好色癖)만을 닮아 있는 점을 지적하고 거침없이 「그것만은 수길을 닮지 말라」고 타이르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히데쓰구는 『범천(梵天) 제석(帝釋) 사대천왕(四大天王)이하 일본의 제신(諸神) 전부에 맹세하여 위배(違背)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에 위배하면 금세에 있어서 천하의 액난(厄難)을 받을것은 물론 내세에 있어선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질 것입니다』하는 서약서를 썼다.

히데요시는 이 서약서를 자기의 측근 기노시따한스께(木下半助)에게 보관시켰다.

그런데 수길은 그로부터 1년9개월후, 히데쓰구에게 후사권(後嗣權)을 주어버린 것을 후회했다. 요도노(淀殿)라고 불리는 소실(小室) 아사이씨(淺井氏)가 다시 남아를 낳은 것이다. 이름을 히로이(拾)라고 했다.

이 실자탄생(實子誕生)의 소식을 들었을 때 히데쓰구는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조금 사리를 알았더라면 자기의 후사권은 물론 양자로 되어 있는 신분을 반환했어야 옳은 것이었는데 전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관백(關白)의 지위에 오르자 이때까지 그의 후견역을 맡아있던 호리오, 나까무라, 미야베, 야마노우찌등 숙로(宿老)들은 대관성으로 가고 대신 기무라히다찌노스께(木村常陸介)란 자가 관백에 시종하는 임무를 띠고 경도에 왔다.

기무라는 야전(野戰)에서 단련된 장군이라기보다 전형적인 문관(文官)이었다. 그는 수길의 지우를 받지 못해 따라서 출세할 수가 없었다. 히데쓰구가 관백이 되자 수길에게 자원해서 히데쓰구를 받드는 역할을 맡았다. 말하자면 수길 당대의 출세는 단념하고 차대(次代)에 희망을 걸었다. 수길이 죽고나면 당연히 히데쓰구의 세상이 될 것인데, 그때 천하의 실권을 잡을수 있으리란 계산이었다.

기무라는 히데쓰구의 개성(個性)에 대해 관대했다. 취임하자마자 기무라는 『전하께선 이제 관백전하이십니다. 마음대로 행동하소서』하고 아뢰었다.

『그래도 될까?』

『되고 말고요. 대관엔 적당히 전해드릴테니 하고싶은대로 하십시오』

이런 매력적인 말을 들은지 오래인 히데쓰구는 되물었다.

기무라는 히데쓰구의 인기를 높일계책을 꾸몄다. 히데쓰구가 학문을 좋아한다는 선전을 폈다.

이 시대 한문에의 관심이란 희박했다. 난세를 살아온 무사들에겐 한문에 힘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마에다도시이에(前田利家)는 그 만년에서 논어(論語)의 강석(講釋)을 듣고 『세상엔 재미있는 것도 있더군. 당신도 한번 들어보슈』하고 가등청정(加藤淸正)에게 권했다는 일화가 남아있다. 그당시 학문의 전통을 지키고있었던것은 중들과 공경(公卿)들 뿐이었다. 수길 이하 제영주들은 미술엔 관심이 있었지만 학문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풍신정권의 특색이기도 했다.

기무라는 이러한 풍조속에서 히데쓰구의 새로운 인물상을 구축하려고 들었다. 그 문사담당자(文事擔當者)로서 승서당(僧西堂)을 임명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8>

숨바꼭질 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수지는 내심의 혼란을 사모님이 눈치챌까봐 허둥지둥 생각나는대로의 고아들의 이름을대며 그들의 행방을 물었다. 영팔이, 재섭이, 순영이…그러나 정작 궁금한 목이(木伊)이름은 차마 입에 담지는 못했다.

목이를 발견하기까지는 「오누이의집」은 수지가 틈만나면 찾아다닌 고아원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휴전이 됐을때 수지는 아홉살 수철이는 의젓한 고등학생이었다. 수철은 특히 이재(理財)면에 조숙하고 수지에대한 오빠로서의 책임감에도 투철해서 대부분이 부동산으로돼있는 한남석씨의 유산관리를 빈틈없이했다. 졸지에 고아가되기는했을망정 한남석씨의 알부자노릇을 고스란히 물려받을수가 있었으니 행복한 고아들인 셈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고아중에선 드물게 행복한 고아노릇을 할수있었던 것은 수철이가 남달리 조숙하고 영악한 까닭도 있었지만 수철이가 법적으로 어른노릇을 할수있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준 외가가 의지가지없는 고아의 재산에 흑심을 품을 필요가 없을만큼 넉넉한 때문도 있었다.

가산이 넉넉하고 마음이 진국스러운 외가의 신세조차도 너무 오래 지는 건 그만큼 마음의 빚을 무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수철이는 장가도 남보다 일찍 대학재학중에 들어서 외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지키고 수지를 곱게 길렀다. 뿐만아니라 동란중에 잃어버린 막내동생 수인을 찾는 일에도 꾸준한 정성을 들였다.

신문광고도 여러번 냈을뿐 아니라 틈틈이 방방곡곡의 고아원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수인을 찾을순 없었다. 그래도 수철은 단념하지않고 자기일이 바빠짐에 따라 고아원을 직접 순례하는 일은 수지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일의 금전적인 지원자노릇만 했다. 똑똑하고 영악하고 독립심이 강할뿐더러 의리가 출중한 이들 남매들에 대해 친척들의 칭송이 자자한 건 당연했다.

그렇게해서 수지가 찾아다닌 고아원중의 하나인 「오누이의 집」이 수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단 하나의 단골로 남게 된 것은 「목이」를 알고나서였지만 처음 만났을때의 목이가 영팔이, 재섭이, 순영이, 옥분이…와 같은 전형적인 고아와 조금이라도 달라 보였던 것은 아니다.

마룻방에 붙은 고아들의 사물함에 붙은 이름표에서 「목이」의 성이 오(吳)가라는건 누구 눈에나 쉽게 띄었다. 대개의 고아들은 유(柳)원장의 성을 따라 유영팔, 유재섭, 유순영, 유옥분…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그 쉽게 눈에 띄는 성명을 무심히 붙여읽었다. 오목이(吳木伊). 오목이. 오목이…. 입에 침이 마르고 다리가 후들대고 가슴이 뛰렸다.

다행히 목이의 나이는 수지보다 세살 아래로 돼있었다. 오목이란 별명을 얻어가질만큼 오목조목한게 특징이던 얼굴모습도 남아있지않았다. 수지는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옛날의 동생의 별명과 본명이 같은 애가 있다고해서 그렇게까지 놀랄건 없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그러나 목이가 오목이가 아니더라도 목이를 만난건 수지에게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완벽함과 견고함을 믿어마지않던 자신의 허위가 실은 너무도 하찮은 충격에도 견디지못하고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걸 알았기 때문이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태권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영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기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통닭.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장의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토요일도 광고접수
10:00 a.m.- 5:00 p.m.
☎ : 533-2361~4
현명한 광고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캐나다 · 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읍니다

南北美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50만 北美교포의
친근한 벗입니다.
구독신청, 광고문의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여자 룸 메이트 구함
☎ : 222—3877 (Mrs. 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구함.
여자(캐쉬어), 남자(헬퍼)
다운타운 지역임. 시간은 원하는 만큼드림.
오후 7시까지는 ☎ : 368—8138
그 이후는 929—0230으로 연락바람.

한국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경험이 있으신분을 구합니다.
월, 토(3시~5 시) ☎ : 532—0602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금, 토)에 밤일하실분
구함. (다운타운) 시간 : 오후11 : 00~오전7 : 00
☎ : 977—2299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 : 431—7168

도나스 샾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시간 : 오후4시~12시, 밤12시~오전8시
(FULL 타임)

그리고 도나스 가게를 말아서 일하실 부부원함
☎ : 531—2689

개스스테이션에서 일하실분 급구
가능하면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 환영
☎ : 537—0208 박(아침9시~밤10시까지)

경험있는 여자캐셔 구함.
오후4시부터 9시까지(서부지역)
261 Scarlett Rd. ☎ : 767—0762

입주하셔서 애기(2년반)보아주실분 구함.
(더프린 × 스틸)
☎ : 669—5784

입주하셔서 네살난 아이와 1살난 아이 봐주실분
구합니다.
☎ : 242—2064(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아기 맡기실 분은 연락바람
스카브로 센테니엘 병원 앞
☎ : 284—4575(MR. LEE)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아파트지역 빌딩내 위치)
턱샵과 같음. 해밀톤 시청뒤.
아이들 손님은 없음. 주매상 : $5600. 리스4년+10년
렌트 : $700(전기, 물세포함) 아스킹 : 80,000+스탁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 : 1—527—0025 (박)

═ 여자 란제리 판매점 ═
다운타운 빌딩안 쇼핑 몰 안에있음.
여자 언더웨어, 나이트 웨어 취급.
장래성이 좋으며, 현재매상 대단히 양호함.
☎ : 363—2601

수입이 좋은 상점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 1 ☎ : 783—0134

그로서리 가게 매매
조그마한 가게를 원하시는분 연락바람.
61메인 스트리트 ☎ : 694—7848

도나리아(Donnaria)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좋은가게를 구입하실수 있는기회!
1362 St. Clair W. ☎ : 654—7240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654—7010(Mr. Pucci)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nforth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세탁소 매매
스카보로지역 오전9 : 00~오후3 : 00
☎ : 751—7615

해밀톤 아파트 조밀지역에 전망좋은 과일가게를
개인사정으로 매매코자함.
☎ : 1—525—1326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양 장 점

셸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시설및 수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8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PLUMBING(상, 하수도 수리, 시설)
☎ : 465—2584, 531—6246(Mr. Lee)

식 품 점

제일식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 영업 : 11AM~ 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하우스 렌트

3베드룸(방갈로) 차고있음
마캄 · 로랜스부근 즉시 입주가능
☎ : 822—4480(Mr. 박)

교통 편리한곳에 2베드룸(2, 3층)세놓음.
집주인 좋음 월 $420
☎ : 532—9139 (Mr. 로드리고)

매매 부동산

록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25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월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622, 255—8301 (R)252—3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확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B)651—9324 (R) 226—5430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참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톨프)
☎ : 625—0698 최 원 보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분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종환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523
50 BLOOR ST. W. ☎ : 967—712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90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등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영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보 광 한 약 방
·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안 강 용 한 약 전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옥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